

Weekly 공감

2009 08.05
No.23(통권 124호)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중점기획 동북아 경제 허브로 거듭나는 새만금

대학 학자금 대출, 취업 후 갚는다

WSJ "한국 미디어법 통과는 잘한 일"

4大江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

이제, 자녀 대학등록금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2010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전격 도입

재학 중에 받은 학자금 대출금을 졸업 후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 생기면 갚아나가는 제도입니다.

■ 졸업 후 소득이 있어야 상환이 시작됩니다.

■ 그 전에는 이자도 내지 않습니다.

■ 등록금 전액을 대출받고 최장 25년에 걸쳐 갚아나갑니다.

■ 이제 등록금 대출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돈이 없어 대학을 못 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것입니다!

www.mest.go.kr

▶ **대출대상**
2009년 2학기 기준 연 소득 4,839만원 이하인 가정(전체 국민의 70%)의 대학생 전원

▶ **대출금액**
연간 등록금 소요액 전액과 생활비 연 200만원
(단,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무상보조)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한국장학재단 Korea Student Aid Foundation KOSAF

4대강 살리기, 지역의 성장축 될 것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대비, 자연과 인간의 공생, 국토 재창조, 지역균형발전과 녹색성장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중심으로 거의 모든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총사업비 16조9천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에 대해 지역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바라만 봐야 할까? 지역적, 장소적 특성을 살린 성공적인 강 살리기 사업에 동참해야 할까? 이즈음에서 지역의 관점에서 바라본 4대강 살리기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 짚어보자.

첫째, 이 사업은 강을 따라 이뤄지는 지역 간 교류의 새로운 연계통로이자 발전의 축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강은 살기 좋은 자연환경과 풍요로운 물산을 배경으로 모둠살이가 시작된 근원이다. 그래서 흔히 강을 지역의 젖줄이라고 표현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일련의 목적에 의해 수립되는, 공간적 범위가 한정된 단지 형태의 개발방식이 아닌 선형 형태의 개발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런 만큼 지역 차원에서는 기존 도시들을 연계하고 그 파급효과를 광역화하기 위한 후속 사업들을 준비해야 한다. 그래야 4대강이 지역 간 소통과 교류의 통로로 기능하고, 상생과 도약을 구현하는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 축이 될 것이다.

둘째, 기존 도시의 재생 및 재구조화로 활력 있는 도시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 도시들은 대부분 강을 중심으로 원도심이라 불리는 도시 형성의 출발점을 거점 삼아 행정중심 형태로 발전했다. 하지만 교통의 발달은 도시 공간구조의 변화를 가져왔고, 주변 도시와의 접근성 향상으로 도시 연담화가 발생했다. 또한 도시의 확장과 신도시 건설, 경제성장에 따른 소비 및 여가문화시설의 도시 외곽 입지 등은 자연스럽게 원도심의 정주인구 이탈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고, 원도심의 부활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공통 과제 중 하나가 됐다.

이러한 측면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원도심에 대한 도시적 수요를 충족시키고 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최근의 도시 재생이 과거의 기능 중심에서 벗어나 미학적 환경을 중시하고 문화와 축제, 자원 활용, 환경보전 등 복합적 지역문화전략을 중요시하고 있으므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담긴 강 주변 공간 개발은 성공적인 도시 재생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는 셈이다.
마지막으로, 문화가 흐르는 강으로서 역사·문화 자원에 대한 재조명과 활용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21세기는 지역중심시대다. 이는 지역의 특색과 정체성을 유지 발전시키면서 세계와 교류하고 경쟁해야 함을 뜻한다. 지역발전의 중요 근간을 이루는 핵심에 문화가 있다. 그 지역의 역사성과 특수성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지역색을 '문화'라고 정의한다면,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문화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융합하려는 지역의 역량과 의지는 무척 중요하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강을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건강한 핏줄로 되살려 궁극적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제 지역에서는 그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하며 지역민이 공감하는 강 살리기, 지역 살리기를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 주의 공감 Weekly_2009.08.05_No.23(통권 124호)



4대강 살리기 민생 살리기

16

기획특집


08


56

Weekly 공감

발행일 2009.8.5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인촌 **제작협력** 동아E&D **인쇄제본** 삼화인쇄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http://gonggam.korea.kr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 〈Weekly 공감〉 22호(7월 29일자) '포커스-29년 만의 언론법 개정' 기사에 대해 독자들이 올린 댓글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미디어법이 직권상정으로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 인준을 거쳐 7월 31일 관보에 공표돼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제 미디어법이 국민에게 인정받는 법이 될 수 있도록 잘 시행해야 한다. 방송 허가를 할 때 밀실행정으로 해서는 안 된다. 투명하고 의심이 없도록 낱낱이 공개해 국민이 인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방송 허가에 티끌만한 의혹이라도 있다면 곧 파멸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의혹 없는 방송허가권이 행사되기를 기대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미디어법, 결과로 국민에게 보여주자"는 말씀을 관계자들은 명심하고 충실하게 따라야 할 것이다." _ msk1117

"여야 간의 지루한 정쟁 속에 표류하던 미디어법이 통과돼 미디어산업 발전은 물론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 기대를 갖게 한다. 이제 논란을 뒤로하고 미디어산업 분야에 새로운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그동안 진입장벽에 막혀 진출하지 못했던 자본의 참여가 가능해지면서 미디어산업 분야의 시장이 확대돼 다양한 콘텐츠산업과 함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게 되었다. 비록 법안에 미비한 점이 있다 해도 큰 벽은 넘었으니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지식정보화 시대에 정보기술(IT) 강국을 이루어냈듯이 이제 미디어산업에서도 세계와 겨룰 수 있게 되었다." _ lee2b2

●● 〈Weekly 공감〉 22호 기획특집 '서민에게 힘이 되는 교육복지정책' 기사와 관련해 독자들이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올렸습니다.

"요즘 서민들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자식 키우는 데는 돈과 열성을 아끼지 않습니다. 어려운 살림살이에 교육비가 많이 들어 참 걱정입니다. 대통령 말씀대로 농어촌이나 저소득층 자녀들도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고, 돈이 없어서 학교 공부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 기회에 적은 액수라도 저소득층 자녀들이 신학기에 학용품이나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바우처 지원을 했으면 합니다. 독일은 교육을 통한 미래를 위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8월 말 새 학년이 시작되면 1인당 1백 유로(16만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다른 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만 아예 교육비로 특화한 서민 지원정책이 어떨지요." _ 정규영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아직 사교육 열풍이 끊이지 않는 걸 보면 정말 안타깝네요. 하루빨리 공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_ 두루누리

Weekly 공감(gonggam.korea.kr), 청와대(www.president.go.kr),
대한민국정책포털(www.korea.kr), 정책공감(blog.daum.net/hellopolicy) 등에 실린 독자의 편지와 댓글입니다.





점멸신호가 확대되어 야간이나 휴일에 불필요하게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똑 똑 똑···

저작권 퀴즈대회 7월 23일 개정저작권법 시행과 더불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출범을 기념하고 저작권법의 올바른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해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저작권 퀴즈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제 1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에 관하여 궁금한 점을 전문적으로 상담해주는 곳이다.
예 □ 아니오 □

문제 2 음악이나 영화 등을 다운로드받는 사이트에서 비용을 지급한 경우는 모두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한 것이다.
예 □ 아니오 □

문제 3 7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저작권법은 불법복제물을 유통시키는 헤비업로더에게 경제적 대가를 주거나 불법복제물 유통을 위한 지원공간을 마련하는 등 이용 편의를 준 게시판만 정지명령의 대상이 된다.
예 □ 아니오 □

▶ **참여방법** http://quiz.copyright.or.kr 에 접속해 퀴즈 문제를 맞히면 됨(오답 시 힌트를 제공하여 재선택 기회 부여).
경품: 1등(노트북 1명), 2등(30만원 상당 아이팟 10명), 3등(1만원권 문화상품권 5백명)

공 감 퍼 즐

■	1	■	2	3	
4			■		■
5		■	■	■	■
■		■	6		7
■		■		■	
■	8			■	■

빈칸에 정답을 적어 주소, 연락처와 함께
8월 12일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Weekly 공감〉 21호(7월 22일자) '공감 퍼즐' 정답과 당첨자

가로 1 제헌절 **4** 사이버 **6** 회계 **8** 전통 **10** 민생법안
세로 2 절도사 **3** 국회 **5** 버전 **7** 계류 **9** 통일안

당첨자
서선주(제주시 이도1동)
이동영(강원 속초시 동명동)
전숙경(경남 의령군 의령읍)
최현미(서울 노원구 상계동)
황해룡(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가 로

2. 물속에 설치하는 보(洑). 강이나 하천의 수위를 일정하게 조절하여 가뭄이나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 설치하죠.
4.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마음. "강을 정비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OOO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5. 중부지방의 젖줄과도 같은 강. 태백산맥에서 시작하여 서해로 흘러듭니다.
6. 'OOO 간척사업.' 전라북도 군산, 김제, 부안에 총길이 33킬로미터의 방조제를 축조해 토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세계 간척사상 유례없는 대사업이죠. 이 이름은 만경·김제평야와 같은 옥토를 새로 만들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명품 복합도시를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수질 개선이 관건이라고 합니다.
8. V자 모양으로 큰 무리를 이루어 이동하는 철새. 가을에 시베리아, 알래스카 등지에서 우리나라로 날아오죠. 근래엔 'OOO 아빠' 라는 신조어도 생겼죠.

세 로

1.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정비하는 사업의 이름. 이 사업의 마스터플랜은 △충분한 수자원 확보 △기후변화와 홍수 대비 △2급수 수질 하천 확대 △다기능 복합 공간으로의 하천변 개조 △관광상품과 농어촌 개발, 녹색성장산업 활성화를 통한 강 중심 지역발전 등 '5대 핵심과제' 를 주축으로 구상되었습니다.
3.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바른 길. "OO 노선을 걷다."
4. 미리 한정하여 놓은 시기. 마감. "이력서 제출 OO이 오늘이다."
6. 신입생 또는 신출내기라는 뜻을 가진, 새로 만들어 쓰는 말. "OOO 환영식"
7.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의 경계를 흘러 서해로 드는 강.



동아DB

정부의 새로운 학자금 대출제도가 대학생들의 등록금 걱정과 부모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

취업 후 벌어서 갚는 '안심대출' 시행

"부모님들 대학 등록금 걱정 마세요"

'개천에서 용 나는 길'을 막아온 현실적 장애물인 대학 학자금 문제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제도'의 전격 도입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대학 학자금을 한도 없이 대출받고 거치 기간에는 이자를 전혀 내지 않으며 취업 후 일정 소득이 생겨야 원리금을 갚도록 하는 새로운 방식의 학자금 대출제도가 내년에 전격 도입된다.

#1 A대 경영학과 3학년 박미정(가명) 양은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1학년부터 매학기 학자금 대출을 받아왔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하기 어려워 대출이자를 벌써 몇 개월째 내지 못했다. 이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됐고 더 이상 학자금 대출도 받지 못할 상황. 박 양은 학업을 그만둘 절망적인 생각까지 했으나 인터넷에서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 일명 '학자금 안심 대출제' 도입 소식을 보고 희망을 갖게 됐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라 해도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받고 졸업 후 취업해 갚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B대 전자공학과 2학년 김민식(가명) 군은 지방에 계시는 부모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져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 없는 형편이 돼 버렸다. 학자금 대출도 생각해봤지만 학생 신분에 대출이자는 큰 부담이다. 편의점과 PC방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있지만 생활비, 식비, 월세에 등록금까지 마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1년 정도 휴학을 생각하던 김 군은 2010년 1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가 도입된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김 군은 취업을 하면 갚기로 하고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 2백만 원을 대출받아 학비 걱정 없이 공부에 전념하기로 했다.

#3 고3 수험생 이한나(가명) 양은 과외나 학원강습을 받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며 의사의 꿈을 키워왔다. 하지만 한 학기에 5백만 원이 넘는 의대 등록금을 생각하면 부모님 고생 걱정에 눈앞이 막막했다. 하지만 뉴스에서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 도입 소식을 본 이 양은 의대에 진학해도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대입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

대학 학자금을 대출받은 뒤 거치 기간에는 이자를 전혀 내지 않고 취업 후 일정 소득이 생겨야 원리금을 갚도록 하는 학자금 대출제도가 전격 도입된다. 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는 대출금 외에 연 2백만원의 생활비가 무상으로 지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 이 같은 내용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7월 30일 밝혔다. '학자금 안심 대출'로 이름 붙인 이 제도는 기존의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대학 재학 중 이자 납부를 유예하고 졸업 후에도 일정 소득이 생긴 시점부터 최장 25년 동안 원리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즉 재학 중 이자 부담이 없고 소득이 없으면 상환의무가 없다.

대학 재학 중 이자 납부를 유예하고 졸업 후에도 일정 소득이 생긴 시점부터 최장 25년 동안 원리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즉 재학 중 이자 부담이 없고 소득이 없으면 상환의무가 없다. 금융채무 불이행자 발생을 근원적으로 없애주는 획기적인 제도다.

이에 따라 금융채무 불이행자 발생을 근원적으로 없애주는 획기적인 제도다. 정부의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는 규정상 최대 10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방식이지만 통상 거치 기간이 5, 6년이며 분할상환 기간도 5, 6년 정도에 불과하다. 또 학자금을 대출받은 즉시 매월 이자를 내야 하고 상환 기간이 도래하면 소득이 없더라도 무조건 갚게 돼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엔 연 2백만원 생활비 무상 지원도

이에 따라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은 재학 중 매월 수십만원의 이자를 갚아야 하고 졸업 후 취업이 안 되더라도 상환 기간이 도래하면 매월 원리금을 갚아나가야 한다. 이 때문에 학자금 대출로 인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2006년 6백70명에서 2007년 3천7백26명으로 증가하더니 올해 6월 기준으로 1만3천8백4명으로 급증하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새 제도가 도입되면 재학 중 이자 부담이 사라져 학생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고, 일정 소득이 있어야 원리금을 갚게 되므로 채무 불이행 문제도 크게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자녀의 학자금 대출이 부모의 부채로 남고 가난이 대물림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새 학자금 대출제도의 수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7분위(연간 가구소득 인정액 4천8백39만원 이하)에 속하는 가정의 대학생으로 평균 성적이 C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고소득층인 8~10분위 가정은 기존의 대출 방식을 적용받는다. 이 제도는 특히 1인당 대출 한도액(현행 대학 4년간 최대 4천만원까지)을 없애 연간 등록금 소요액 전액과 생활비 연 2백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생활비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무상으로 지원하고 소득 1~7분위는 소득에 따라 무이자 또는 정상 대출 방식으로 지원한다.

새 제도는 올해 대학입학시험을 치르는 2010년 대학 신입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대학 재학생(휴학생 포함)은 졸업할 때까지 현행 제도와 새 제도 중에서 택일하도록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새 제도가 시행되면 전체 대학생(1백97만명)의 절반이 넘는 1백만명 이상의 대학생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전 제도의 경우 전체 대학생의 20.3퍼센트인 40만명 정도만 혜택을 받아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관계부처와 상환기준 소득, 소득수준과 연계한 상환율, 일시상환에 대한 인센티브, 재원 조달 방법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협의해 9월 말 세부 내용을 확정, 2010년 1학기부터는 새 제도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G

글 · 박경아 기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 소득계층별 대상인원 및 수혜자

소득계층	대상인원	현행제도 수혜자	새 제도 수혜자(추정)
기초수급자	5.5	5.2(94.5)	5.2(94.5)
소득 1~3분위	43.0	12.8(29.8)	40.0(93.0)
소득 4~5분위	33.5	5.8(17.3)	27.0(80.6)
소득 6~7분위	37.4	4.6(12.3)	23.0(61.5)
소득 8~10분위	77.8	11.8(15.2)	11.8(15.2)
계	197.2	40.2(20.3)	107.0(54.3)

※ ( )는 대상인원 중 수혜자의 비율 단위: 만명


동아DB
새 학자금 제도 도입으로 대학생들은 마음 편히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듣는 정책 현안

"미디어법 개정으로 국민의 언론 선택권 넓어져"

요즘 최대 화제는 미디어법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국정책방송 KTV에 출연해 '뜨거운 감자' 미디어법 개정에 대해 입을 열었다. 아울러 저작권법과 문화정책, 복지 전반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1988년 만들어진 미디어법이 지금까지 유지되면서 신문·방송 겸영 금지 같은 진입장벽들로 시장 형성이 어려웠어요. 2012년까지 모든 방송이 디지털화하는 상황에선 수많은 매체가 출현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부터 다양한 매체에 대한 훈련과 콘텐츠를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못하면 외국 프로그램만 사다 보게 될 수 있어요. 국제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미디어그룹의 출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현안인 미디어법이 국민적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여야의 갈등을 그대로 안은 채 통과된 데 대해 안타까워했다. "시행과정에서의 어려움이야 물론 있겠지만 긍정적으로 잘 극복해야 하지 않겠느냐"고도 덧붙였다.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에 등장할 정도로 굵직굵직한 이슈 속의 유 장관은 KTV '정책 대담'에 출연해 미디어법의 개정 내용과 미디어산업의 변화, 저작권법과 문화정책, 예술인 지원 등 다양하고 폭넓은 문화 관련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밝혔다.

미디어법 통과 이후 대기업과 언론의 방송 진출이 가장 우려되고 있는데요, 여론 독과점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방송환경이 한정적일 때는 독과점이 실현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사실 매체가 늘어나면 오히려 국민들의 언론에 대한 선택권이 넓어진다고 볼 수 있죠. 국민들은 다양한 볼거리와 전문화된 채널들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여론 독과점과 같은 부작용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여론 집중도 조사, 방송은 미디어 다양성 연구 위원회 등을 만들어 사전과 사후 규제 방안을 철저하게 마련하려 노력 중입니다.

신문법 개정으로 지역 언론의 생존이 위험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디어법이 통과된 뒤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한국언론재단 등을 통폐합했지만 지역신문발전위원회만은 그대로 두었어요. 지역신문의 특수성을 좀 더 구체화하고 다양화하기 위한 것이지요. 지역신문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안도 고민 중인데, 언론에 대해 금전적 지원을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유가 부수가 늘어날 수 있게 하는 유통망의 문제라든지 간접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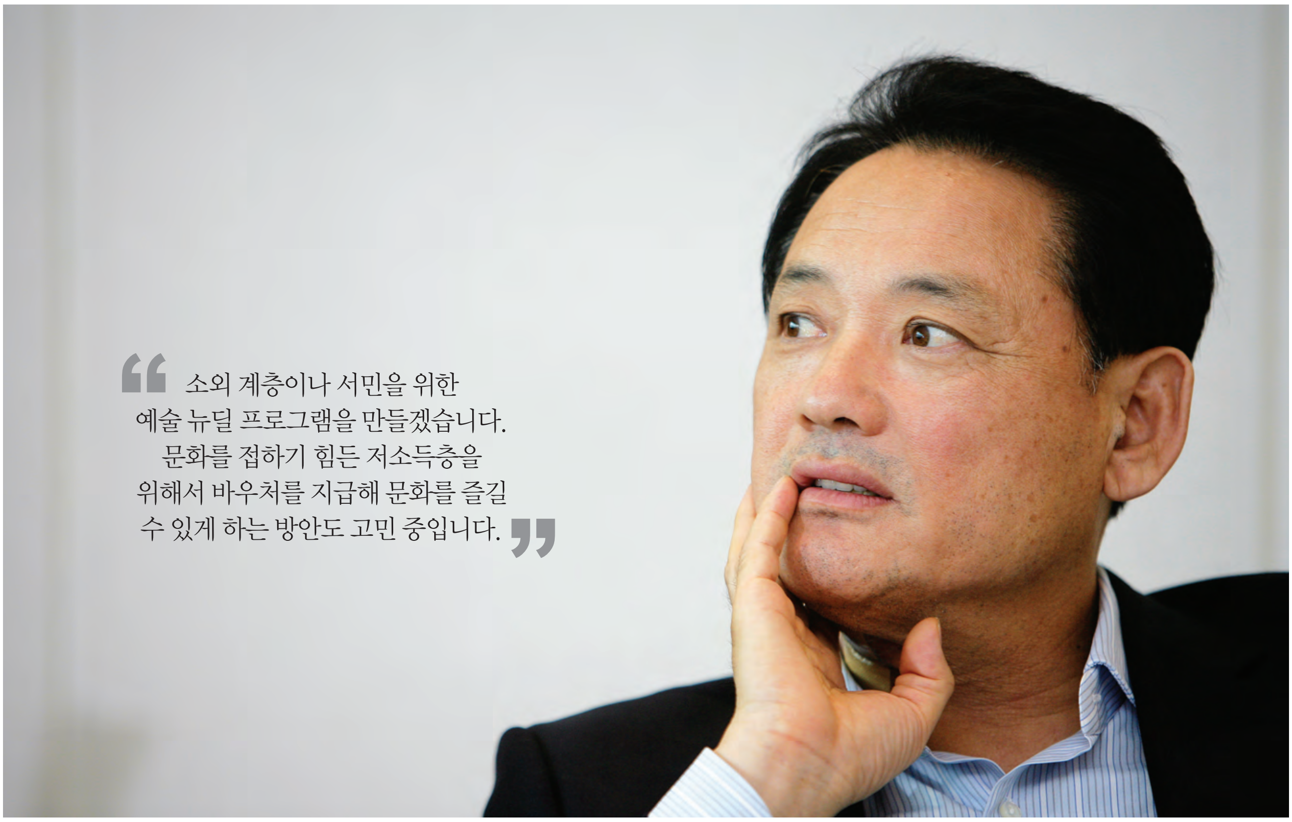
저작권법에 관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4월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됐는데,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발표하는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우리나라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해제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그간 우리나라를 남의 지적재산권을 도둑질하는





유인촌 장관은 KTV '정책대담'에 출연, "미디어산업 변화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미디어그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영철 기자

국가로 봤다가 우리의 저작권 정책에 대한 불신을 풀었다는 얘기이니 반가울 수밖에 없지요. 무엇보다 우리의 저작권 보호나 법제도 선진화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이 뿌듯합니다.

저작권과 관련해 제재 일변도로 가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있는데, 국민들의 저작권법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은 없습니까.

저작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이 우선돼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내년부터 저작물 교육을 확대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스스로 저작물을 제대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외에서 쓰이고 있는 우리 저작물의 대가를 확실하게 받게 하는 정책도 시급합니다.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인 콘텐츠산업은 지적재산권 보호와 육성 없이는 성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를 구축해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들여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을 계획입니다.

정부의 예술인 지원 관련 정책은 어떤 기조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예술가들은 거의 실업자나 다름없지요. 일을 해도 수입을 보전하기가 어렵습니다. 다행히 노동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었어요. 적은 돈이지만 4대 보험도 적용되고 월 최저생계비도 지원하는 3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이러한 방향을 잡은 이유는 제도적으로 어려운 예술가들을 지원해서 그들이 창작활동을 자유롭게 하면서도 자립할 수 있게 하자는 거지요. 한시적으로 3년 적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이나 서민을 위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은 있는지요.

예술 뉴딜 프로그램을 만들 겁니다. 가용 예산 1천3백30억원을 동원해 시낭송회 같은 것들을 오지 중심으로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특히 문화를 접하기 힘든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바우처를 지급해 문화를 즐길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고민 중입니다. (우리 사회 내에) 50만원을 내고 뮤지컬을 볼 수 있는 그룹이 있다면, 서민들은 같은 뮤지컬을 5천원 내고 볼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문화복지의 내용입니다. 그런 것을 확실하게 정책에 반영할 겁니다.

문화복지가 확연히 달라졌다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새로운 문화정책은 지난해 말에야 속도를 내기 시작해서 이제야 정리됐습니다. 올해 예산을 세워 내년부터는 그야말로 색깔 있는 문화정책이 나올 것이라 자신합니다. 정책이 탄탄히 밑받침된다 해도 현장에서 변화를 피부로 느끼기에는 최소한 3년에서 5년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당장 예산을 많이 들여 가시적 성과를 내기보다는 좀 더 길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정책이 자리 잡고 꽃을 피우는 내년쯤엔 아마도 체감할 수 있을 겁니다. G

정리 · 정지연 기자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대책위원회
http://fta.korea.kr

보건복지가족부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질병관리본부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예방수칙

신종인플루엔자로부터 우리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예방수칙을 준수합시다!

가리고

재채기를 할 경우에는 화장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고





버리고

사용한 화장지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고

손씻고

손은 비누를 이용해
깨끗이 자주 씻고





신고하고

37.8℃이상의 발열, 기침, 목아픔, 콧물, 등의
증상이 있으면 **선생님께 말하거나** 가까운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신종인플루엔자 검색 www.cdc.go.kr

기 획 특 집

4大江 살리기는 지역 살리기 경제 살리기











장한 물줄기의 광활한 한강, 휘몰이 가락처럼 굽이굽이 돌아가는 낙동강, 부여에 이르러 백마강이라고도 불리는 아담한 여운의 금강, 정겨운 남도평야를 나그네처럼 지나는 영산강. 남(南)으로 서(西)로 흐르며 국토를 종횡(縱橫)하는 이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시작됐다.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4대강 살리기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문화의 물꼬를 틔워 강과 사람이 함께 살아나는 상생(相生)의 강,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소통(疏通)의 강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다. 지금 4대강에서는 상생과 소통을 향한 힘찬 발걸음이 들려오고 있다.

생산유발효과 38조원 고용창출 35만명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할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환경부는 강마다 나뉘어 있던 물 관리, 하천 관리에 대한 법률을 하나로 통합한 '4대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7월 15일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엔 수변구역 토지를 국가가 수용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겨 있어 수변지역 정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조달청도 6월 29일 4대강에 만들어질 15개 보(洑)에 대한 1차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 발주를 공고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권역별 경제 파급효과

구분	공사비(원)	생산유발효과(원)	취업유발효과(명)
수도권	1조6000억	6조7200억	6만3500
강원권	5000억	9300억	9100
충청권	2조9000억	5조2600억	4만9400
전라권	3조4000억	6조700억	5만4400
경북권	6조4000억	10조4800억	9만7600
경남권	4조6000억	9조	8만2700
계	19조4000억	38조4600억	35만6700

지방자치단체들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북도는 7월 16일 낙동강 살리기 추진본부를 정식 기구로 구성, 8월 초 본격 출범에 들어간다. 경기, 충남, 전남 등 다른 지자체들도 전담 부서를 만드는 등 사업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민간 차원에서도 7월 26일 '4대강 살리기 국민운동본부'가 발족식을 가졌다. 정부와 지자체, 국민이 4대강 살리기에 하나로 결집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6월 29일 분명히 밝힌 것처럼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대운하 건설이 아니라 수질 개선과 홍수 조절, 강 문화 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룰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획기적인 전환

점이 될 전망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2012년까지 본사업비 16조9천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지역에 풀리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반 공사는 40퍼센트, 턴키 공사는 20퍼센트 이상 해당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하도록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약 40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5만명의 일자리 창출 중에서 상당 부분이 해당 지역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권홍사 대한건설협회장은 "건설업은 고용 및 생산 유발 등 산업 간 연관효과가 매우 큰 산업으로 침체의 늪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강변에 문화콘텐츠 기반의 관광도시가 조성되고, 내륙~강~바다를 연결하는 친환경 리버크루즈 상품도 개발된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는 '리버 르네상스'를 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8개 업종 중 고용(2위), 생산(3위)에서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권 회장은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공간적 범위가 전 국토의 70퍼센트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가 전국 각지에 고루 퍼져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효과가 매우 클 것"이고 전망했다.

경제위기 극복과 녹색성장 두 마리 토끼 잡을 것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7월 13일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라는 보고서에서 4대강 공사를 통한 권역별 생산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경북권이 생산유발효과 10조4천8백억원, 취업유발효과 9만7천6백명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낙동강 영향권인 경남권도 9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8만2천7백명의 취업유발효과가 기대됐다.

수도권은 한강 수계의 본사업비가 2조4백35억원으로 4대강 중 예산 규모는 가장 작지만 생산유발효과 6조7천2백억원, 취업유발효과 6만3천5백명으로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수도권은 산업집중도가 높아 개발에 따른 간접 파급효과가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강원권은 한강 살리기 사업으로 9천3백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9천1백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전라권은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6조7백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5만4천4백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충청권은 금강 살리기 사업으로 5조2천6백억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와 4만9천4백명의 고용 창출을 예상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또한 건설 분야 일자리 창출 외에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추진하고 있는 관광 및 레저자원 개발, 문화산업 육성과 수변도시 조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 창출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4대강 주변의 문화와 역사를 강과 접목해 관광 및 레저산업을 활성화하려 하고 있다. 강변에 문화콘텐츠 기반의 관광도시가 조성되고, 내륙~강~해양을 연결하는 친환경 리버크루즈 상품도 개발된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는 '리버 르네상스'를 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미 지역별 특성을 활용한 개발계획도 마련됐다. 경북 안동시는 '낙동강 70리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역사와 문화, 생태체험이 연계된 관광 자원(리버워크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사업이 완료된 2014년 이후에는 연간 4백만명 이상이 이곳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강 유역은 백제의 옛 수도였던 공주와 부여를 연결하는 67킬로미터 뱃길 복원을 통한 문화관광 루트 조성을 구상하고 있다. 이미 공주 금강변엔 대규모 문화관광지 조성사업이 추진 중이고, 부여에는 백제역사재현단지가 건립 중이다. 뱃길 복원과 역사성을 살린 관광시설이 결합하면 관광객 유치에 큰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농촌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키는 '금수강촌(錦繡江村)' 도 주목된다. 정부는 금수강촌을 접점으로 인근 향토음식점, 전통·문화자원, 재래시장을 연결해 체험과 휴양을 병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국토해양부는 4대강에 건설되는 보를 관광자원화할 계획이다. 이미 보 건설공사 입찰 내용에 지역 특색을 넣은 '스토리 랜드스케이프(Story Landscape · 이야기가 담긴 경관)' 형성이 가능하도록 디자인하라는 조건을 넣었다. 한강 이포보의 경우 도자기와 세종대왕의 창작품을, 금강 부여보는 낙화암과 계백 장군을, 영산강 승촌보는 생명의 땅 나주를, 낙동강 강정보는 패션중심지 대구를 주제로 제시했다. G

글 · 최호열 기자



문화일보

4대강 살리기 국민운동 발대식에서 4대강의 물을 한곳에 모으는 합수식 후 건배를 하고 있다.



한강 캐릭터인 황복입니다. 연안 주변에서 살다가 3~5월 봄에 산란을 위해 강으로 올라옵니다. 부화 후 치어는 바다로 가서 성장하고 다 성장하면 몸길이가 약 45센티미터 정도 됩니다. 가슴 로고는 한강의 'ㅎ'이며, 문화와 열정을 상징하는 황금색과 분홍색을 사용했습니다.

한강

'21세기 新한강의 기적' 경기-충북-강원 잇는다

한강 살리기는 단지 생태 복원과 홍수 방어에 그치지 않는다. 3개 시도에 걸친 거대한 한강이 맑고 깨끗해지면 지역경제에 녹색불이 들어오고 국민들의 삶이 윤택해질 것이다. 한강의 기적은 다시 시작되고 있다.


경기, 강원, 충북 등 3개 시도에 걸친 한강 유역 살리기에는 총 2조4백3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사진은 팔당호로 유입되는 경안천 하류.

한강은 단순히 강의 이름만은 아니다. 1970년대 엄청난 경제발전을 이뤄낸 우리나라를 가리켜 외국에서는 '한강의 기적'이라 칭했다. 한강은 단순히 수도권 지역을 대표하는 일개 강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젖줄이자 국가경제의 대동맥이다.

태백산맥에서 발원해 강원도와 충청북도, 경기도, 서울특별시를 지나 서해로 흘러드는 한강은 길이 5백14킬로미터, 유역면적 2만6천2백19 제곱킬로미터로 한국에서 네 번째로 긴 강이다. 또한 한강은 수도권 2천3백만명의 식수원이자 경인공업지대를 포함한 수도권 내 제조업체 6천4백12만4천여 곳의 공업용수 공급원이기도 하다.

한강의 경제적, 환경적 가치는 얼마나 될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2007년 한강 하구의 가치를 7천3백37억원이라고 발표했다(2003년 기준). 이 금액은 수산물 생산 및 수질정화 기능은 물론 여가나 심미적 안정감에 기여하는 기능과 함께 특히 후손에게 물려줬을 때의 유산으로서의 가치가 포함된 것이다.



정경택 기자

하지만 이런 소중한 한강은 장마철만 되면 물난리로 홍역을 치른다. 올해 7월 이어진 집중호우 때만 해도 남양주시 2명 사망, 고양시와 남양주시 등 5개 시군 16.9헥타르의 농경지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20년 동안 집중호우 빈도수는 무려 73퍼센트 증가했으며, 기후변화에 따라 집중호우 발생 빈도는 앞으로도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중에서도 한강 유역 사업은 크게 '홍수 방어와 생태 복원, 수변공간 확충, 수질 개선'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투입되는 예산 규모와 이로 인해 예상되는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경기, 강원, 충북 등 3대 시도에 걸친 한강 유역 살리기에 배정된 총예산은 2조4백35억원. 그중 70퍼센트에 달하는 1조4천6백10억원이 경기지역 한강에 집중돼 있다. 경기도는 총 1백95개 사업 중 직접사업(1백14개 사업)에 1조3천1백84억원, 연계사업(81개 사업)에 1천4백26억원을 투자한다. 충북도는 49개 사업에 7천8백7억원, 강원도는 북한강, 섬강, 평창강 등 3개 권역 32개 지구에 4천4백7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수변공간 활용… 창의적 공공디자인 개발도

먼저 경기도는 남한강 유역의 홍수 방어를 위해 양평, 이포, 여주 등 한강 유역 5곳에서 벌이는 하도 준설사업에 2천9백57억원을 투입한다. 경기 여주와 이포, 강천에 3개의 보가 설치되면 팔당댐~이포~여주~강천~섬강~충주댐 구간 총 1백14킬로미터가 이어져 총 4천만 세제곱미터의 수량이 확보된다. 3개 보 사업비는 2천7백79억원 규모다. 이 밖에도 34개 제방 축조 및 보강에 2천6백61억원이 투입된다.

하천 복원과 친수공간 수요 증대를 위해 생태하천 40곳 조성사업에 2천5백89억원을 배정했다. 경기 여주의 백석리섬과 당남리섬 같은 섬지구 생태공원과 경기 양평의 교평지구, 창대지구 등 둔치 생태공원을 조성해 시민들을 위한 쾌적하고 다양한 휴식·여가공간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한편 남한강 하류와 상류를 연결하는 1백54킬로미터의 하천부지에는 자전거도로도 개설된다. 출퇴근도로 및 테마공원 등으로 활용 가능한 자전거도로 개설 비용으로 1백97억원이 책정돼 있다. 또 여주군 대신면에는 1천3백98억원을 들여 2백90만 제곱미터 규모의 강변저류지를 신설하는데, 홍수 때 범람하는 물을 가둬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연계사업으로 농업용 저수지 8개소 보강사업에 9백56억원, 팔당호를 비롯한 수질 개선대책에 4백7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한강 살리기와 관련해 빼놓을 수 없는 사업은 수변공간을 활

용한 휴식·여가공간의 개발이다.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수변 공간을 문화적으로 재생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한강의 경우 양평군을 중심으로 한강 아트로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2011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총 41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한강 아트로드는 88번 국도의 갤러리들과 마나스아트센터 등 각 갤러리 간의 자연친화적 보행로를 연결해 네트워크화하자는 계획이다. 설치형 예술작품을 전시해 예술 특화거리로 꾸미는 한편 15개 아트포켓 간에 자연스럽게 자전거도로를 연결하고, 창의적인 공공디자인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수도권지역 건설공사는 수도권지역에 약 2조5천7백억원, 기타권 6천억원의 생산을 유발한다. 또 일자리 창출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수도권 내 취업유발 인원은 2만7천4백명, 기타권 3천6백명에 달한다.

경기도는 이같이 다각화된 한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수량 확보와 하천생태 복원은 물론 침체된 수도권 경제가 활기를 띨 것이라고 전망한다.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에 따르면, 수도권지역 건설공사는 수도권지역에 약 2조5천7백억원, 기타권 6천억원의 생산을 유발한다고 한다. 전국적으로 약 3조 17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내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도 활발해진다. 한강 살리기 사업으로 수도권 내 취업유발 인원은 2만7천4백명, 기타권 3천6백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적으로는 약 3만1천명의 취업이 유발될 전망이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한강권역 사업은 경북권과 경남권에 이어 세 번째로 그 파급효과가 크다고 한다. 생산유발효과 6조7천2백억원, 취업유발효과 6만3천5백명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건설 공사 물량이 많지 않은 수도권이 파급효과가 큰 것은 수도권의 경제 및 산업 집중에 따른 간접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동아DB

한강 살리기는 생태 복원과 녹색성장에 기여한다. 사진은 청풍명월의 충주호반.

강원지역도 한강 살리기로 혜택을 받는다. 건설 공사액 약 4천5백억원이 도내에 6천7백억원, 기타권에 3천2백억원의 생산을 유발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한강 살리기 사업으로 강원권 내에 유발되는 취업인원만 6천4백명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해당 권역의 발전만을 도모하는 사업이 아니라, 타 권역에도 간접적인 경제파급효과를 미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즉 지역균형발전을 바탕으로 한 국토 재창조 사업이자 녹색성장으로 부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수도권 규제에 묶여 있던 여주나 이천지역 주민들은 특히 한강 살리기 사업을 환영하고 있다. 여주군 김상호 비전정책과장은 "남한강 개발사업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보게 됐다. 경제적 이익은 물론 삶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팽배하다"고 말했다.

광주시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 권혁진 사무국장도 "정부가 추진하는 한강 살리기 사업은 그동안 규제 일변도였던 수도권 지역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반겼다. 권 사무국장은 "경안천 살리기가 그러했듯, 하천생태의 보존과 개발이 동시에 병행되기를 바라는 지역 주민들의 열망 또한 사업에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팔당 상수원 유입 하천 중 하나인 경안천은 종합적인 수질관리대책으로 맑고 깨끗한 강으로 거듭나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한강 살리기 사업이 본격화되면 경안천뿐만 아니라 한강 수계 2천7백32개 샛강 전부가 맑고 깨끗해질 수 있는 초석이 놓일 것이다.

이에 대해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한강유역은 용수 확보도 중요하지만 수도권 식수원인 팔당 상수원 보호를 위해 수질 관리도 고려해야 한다. 남한강 본류로 유입되는 국가하천의 수질은 특히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강원 지역 취업유발 인구 6천4백명 달해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경기도는 도 차원의 한강 종합발전 프로젝트인 '경기도 강변 살자'와 연계 추진해 한강을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고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강으로 만들 계획이다.

'경기도 강변 살자'는 한강 본류(양평 양수리~한강 하구)와 남한강(여주·이천~양수리), 북한강(가평~양수리) 3개 권역으로 나눠 수해 걱정 없는 안전한 한강 잇기,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한강 잇기 등 6대 기본 방향에 20대 분야 1백52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곤지암천 친환경 개수공사와 이천 복하천 및 청미천 정비, 여주 배수문 보강사업, 나루터 포구 68개소의



한강 살리기 주요 핵심사업

보	3개
농업용 저수지	12개
준설	5000만m^3
노후제방 보강	131km
강변저류지	2개
생태하천	193km
자전거도로	305km

지도 일러스트 · 이우정

복원 및 수변관광지 조성, 생태환경 복원과 하수처리시설 정비, 자전거도로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 이재율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경기도의 강변 살자 사업이 함께 추진되면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강변 살자' 사업에 22조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시군도비의 활용과 함께 민자 유치도 고려하고 있다. 경기도 비전기획관실 박광섭 주무관은 "2010년까지 정부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에 대한 종합계획을 마련하는 만큼, 이번 마스터플랜에서 제외된 한강 하구나 임진강 유역이 포함될 수 있게 면밀한 조사와 준비를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가 흐르는 강' 사업과 연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자연은 그저 내버려두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관리도 필요하다. 물길을 손질해서 자연의 가치를 높이는 일은 우리 경제에 녹색 신호등을 켜는 동시에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일이다. 한강의 생태 복원을 통한 개발로 우리 모두가 유·무형의 커다란 혜택을 보게 되는 대역사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G

글 · 정지연 기자

김문수 경기도지사

일자리 최소 6만개… "경기도 강변 살자"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경기도의 행보가 바쁘다. '한강 살리기'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추진 중인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만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한강 잇기 프로젝트인 '경기도 강변 살자' 사업에 대해 들었다.



해마다 홍수 피해를 겪고 있는 한강유역은 오염된 강물을 정화시키는 데 천문학적 비용을 쓰고 있다. 이에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한강 유역을 포함시키고 '남한강의 홍수 피해를 줄이고 생태계를 복원하며 여가 기반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이포, 여주, 강천에 3개의 보를 조성하고 노후제방 1백31킬로미터를 정비하며, 생태하천 1백93킬로미터와 자전거도로 3백5킬로미터를 만들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문수(57) 경기도지사는 "홍수와 가뭄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 마련과 생태 복원은 물론 그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 있던 한강유역을 친환경 녹색성장의 거점으로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도 강변 살자' 프로젝트를 4대강 살리기와 연계해 적극적으로 한강 살리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4대강 살리기 사업, 특히 한강 살리기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올 여름 집중호우로 남양주를 비롯한 경기도의 많은 지역이 또 침수 피해를 겪었습니다. 한강 하구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특히 한강 살리기는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예방대책을 완비하는 계기가 돼줄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경기도의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리라 기대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중입니다.

한강 살리기 사업이 지역경제에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줄 것이라 예상합니까.

4대강 살리기 관련 본사업비 16조9천억원 중 경기, 강원, 충북 등 3개 도에 걸친 한강유역에 배정된 예산은 2조4백35억원으로, 그중 70퍼센트가 경기도 한강에 집중 투자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건설 부문에만 6만3천5백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건설자재 관련 제조업과 운송 분야 등에서 생산유발효과가 크리라 봅니다. 건설 부문에 지역 업체의 의무 참여 비율이 높아져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리라 전망합니다.

동아DB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각종 규제에 묶여 있던 한강 유역의 녹색발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강 유역은 경기, 강원, 충북까지 이어지는 광역권입니다. 한강의 지역적, 경제적 특성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한강 주변은 복합적 이해관계가 얽힌 지역입니다. 그동안 상수원보호지역,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 개별공장 및 골프장 입지 제한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있어 개발을 염원하는 주민들의 열망이 거센 곳이지요. 거기에 한강수변 인근이 준농림지역으로 바뀌면서 농지나 산지에 고층 아파트가 무질서하게 건설되는 난개발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이런 점을 감안해야 할 겁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한강 유역은 크고 작은 1백25개 지천과 지류가 합류하는 공간으로 홍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정부가 2010년까지 지방 하천을 정비하는 제2단계 마스터플랜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북한강과 지방하천을 포함해 그야말로 한강을 잇는 종합적인 치수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 4대강 살리기는 하천 정비가 중심입니다. 수도권 식수원인 팔당 상수원 보호를 위한 수질 관리도 고려해야 합니다. 하도를 준설할 때는 강 여건에 맞는 공법을 적용해 준설공사 전후에 발생할 수 있는 오염사고 예방에 신경을 쓰고, 지류의 수질까지 관리해야 합니다. 남한강의 경우 본류로 유입되는 청미천 같은 국가하천의 악화된 수질을 그대로 둬서는 곤란합니다.

경기도 한강의 종합발전 구상인 '경기도 강변 살자' 사업과 4대강 살리기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강변 살자' 프로젝트는 북한강과 임진강, 한강 하류 등 본류는 물론 2천7백32개 샛강에 이르기까지 경기도내 강에 대한 사업을 모두 아우르는 대사업입니다.

한강의 특성을 감안할 때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각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홍수 피해를 줄여 막대한 비용의 낭비를 줄이고, 수질을 자정하는 노력 역시 기울여야 합니다. 방치돼온 한강 하천의 생태복원을 우선적인 과제로 하되 그동안 저개발된 수도권의 개발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아울러야 합니다. 수변 환경과 역사·문화 유산을 복원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친환경 녹색성장이 그 목표이자 추구해야 할 방향이 될 겁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경기도만의 계획은 있습니까.

경기도 한강의 종합발전 구상인 '경기도 강변 살자' 사업과 4대강 살리기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강변 살자' 프로젝트는 북한강과 임진강, 한강 하류 등 본류는 물론 2천7백32개 샛강에 이르기까지 경기도내 강에 대한 사업을 모두 아우르는 대사업입니다. 수해 걱정 없는 안전한 한강, 세계로 소통하는 한강,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한강, 자연이 숨 쉬는 한강, 건강하고 즐거운 한강, 분단을 넘어 번영을 창조하는 한강 등 6개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20대 분야, 1백52개 사업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지켜보는 지역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십시오.

고질적인 물난리로 여름이면 가슴을 죄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4대강 살리기는 자연재해를 막을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국가적 대계입니다. 단순한 토목공사 수준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이지요. 4대강 살리기로 한강유역이 문화와 역사, 생태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재탄생하기를 바라며,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행복한 삶의 터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G

글 · 정지연 기자

강 따라 1박2일… 문화가 흐르는 한강

수려한 산줄기 머리 위 별이 빛나네

충주→제천→단양

충주 나들목에서 먼저 가볼 곳은 중앙탑조각공원. 중앙탑은 국보 6호인 신라시대 석탑으로, 통일신라 때 나라의 중앙 지점에 세워놓은 탑이라 하여 중앙탑이라 불린다. 현존하는 신라 석탑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충주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재다. 1992년부터 충주시에서 국내 조각가들의 작품 26점을 함께 전시하면서 야외 조각공원이 됐다.

중앙탑조각공원 입구에는 '충주의 향토음식'인 오리백숙 전문 식당이 즐비하다. 푹 삶은 오리를 살만 발라 접시로 옮겨주고 국물은 나중에 죽을 끓여주는데 기름기가 없이 담백한 맛이 일품이다.

중앙탑조각공원을 나서 시내 쪽으로 가면 탄금대가 나온다. 신라 진흥왕 때 악성 우륵이 조국인 가야를 그리워하며 망국의 한을 달래기 위해 가야금을 연주했다는 전설이 전한다. 소나무숲 산책로를 따라가면 유유히 흐르는 남한강과 기암절벽의 경치를 볼 수 있다.

충주댐을 들르지 않으면 충주를 여행했다고 말할 수 없다. 이 댐이 생기면서 충주는 호반의 관광도시로 탈바꿈했다. 댐과 호수를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엘리베이터에 오르면 환상적이라는 말이 저절로 입에서 튀어나온다. 충주댐 옆에 물 홍보관이 있으니 한번 둘러보자.

청풍문화재단지, 수몰 위기 문화유산 한자리에

충주댐이 생기면서 수몰돼 사라질 뻔한 문화유산을 한자리에 모아놓은 곳이 청풍문화재단지다. 보물 528호인 한벽루를 비롯해 금남루, 응청각, 청풍석조여래입상 등이 있어 짧은 시간 동안 다양한 유물을 감상할 수 있다. 호수에 떠다니는 유람선과 호수 건너편 청풍랜드, 그리고 제천의 산마루들을 감상할 수 있는 입지 조건도 금상첨화다.

청풍문화재단지를 나와 청풍대교를 건너면 번지점프와 암벽등반을 즐길 수 있는 청풍랜드가 있다. 청풍랜드 앞 수경분수는 시원한 물줄기를 뿜어올려 여행객들의 눈을 즐겁게 한다. 청풍랜드를 나와 36번 국도를 타고 단양 방면으로 30여 분 달리면 도담삼봉이 나타난다. 조선왕조의 개국공신 정도전이 자신의 호를 따라 도담삼봉이라 이름 지었다는 곳이다.



강원도 영월군 서면 오정리의 뗏목체험.

연합

동아DB



동아DB



구절리에서 아우라지를 잇는 레일바이크를 타면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다(왼쪽). 단종에 얽힌 애달픈 사연이 굽이치는 영월의 아름다운 풍경.

영월→정선

영월 읍내에서 제천 방향으로 가다 보면 읍내를 벗어나는 지점에 장릉(莊陵)이 있다.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이곳 영월에 유배되었다가 죽음을 맞이한 비운의 왕 단종의 무덤이다. 장릉 초입에는 단종역사관이 있다. 읍내에서 가까운 남면 광천리의 청령포는 단종이 사약을 받은 장소다.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이고, 뒤쪽으로는 험준한 산줄기와 절벽에 가로막혀 있어 이곳에 서면 가슴도 먹먹해진다. 장릉에서 자동차로 남쪽 방향으로 10분 정도 가면 된다.

영월군 북면 곤충박물관을 지나가면 선암마을 이정표를 볼 수 있다. 선암마을은 태기산에서 흘러내린 주천강과 평창강의 합류 지점으로 이곳 마을 앞에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를 꼭 빼닮은 지형이 있다. 주천강을 따라가다 보면 수주면의 무릉리와 도원리라는 아름다운 마을을 볼 수 있고, 10여 분 더 달리면 요선정이라는 작은 정자가 나온다.

주천면은 한우고기로 유명하다. 신선한 한우고기를 값싸게 판매하는 일명 '다하누촌'이라는 전문 식당가가 생겼다. 다하누촌 정육점에서 원하는 부위의 한우를 사다가 인근 식당에서 조리해 먹으면 된다. 영월 지역에서 직접 기른 한우라 값도 저렴하고, 고기가 신선하며, 맛도 부드럽고 고소하다.

영월 읍내의 동강사진박물관도 빼놓을 수 없다. 2002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동강사진축제의 수상 작가와 참여 작가들에게서 기증받은 사진 등 8백여 점의 사진과 1백30점의 클래식 사진기가 전시돼 있다.

또 영월에서 단양까지 이어진 도로는 남한강의 제맛을 알게 하는 환상적인 드라이브 코스다. 여름이면 래프팅을 즐기는 사람들이 줄을 잇는 곳이다.

이제 영월군 하동면 고씨동굴을 향하자. 고씨동굴 앞에 있는 다리를 건너면서 남한강 상류를 가장 멀리까지 볼 수 있다. 고씨동굴을 보고 돌아 나오는 길에 방랑시인 김삿갓의 묘소도 가 볼 만하다. 하동면 와석리에 위치했는데, 해마다 9월에 김삿갓 문화축제가 열린다.

영월서 직접 키운 한우 '다하누촌'도 방문

영월읍 뒷산인 봉래산 정상에는 별마로천문대가 있다. 어라연계곡 쪽으로 올라가면 현대미술관을 지나 정상에 도착한다. 지하 1층 지상 3층의 천문대에서는 천체 관측 외에 유성우, 일식, 월식 현상을 수시로 관측할 수 있다. 미리 예약하면 천문대에서 하룻밤을 묵을 수도 있다.

정선 여행은 북쪽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정선읍 북평면 나전삼거리 부근의 항골계곡은 해발 1천1백70미터의 백석봉이 우뚝 서 있고, 옆에는 상원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장관이다. 항골계곡은 소망탑이라는 1백80여 개의 옹기 항아리와 돌탑으로도 유명하다. 항골계곡을 나와 왼쪽으로 가면 아우라지다. 양수인 송천과 음수인 골지천이 만나 '어우러진다'는 뜻의 아우라지는 오래전에 한양으로 목재를 운반하던 뗏목이 출발했던 곳이다. 한때 정선선 열차의 종착역이었던 구절리에서 아우라지까지 총 7.2킬로미터 구간에 레일바이크가 운행 중이다. G

글 · 박상대(여행스케치 대표)

●● **영월군 문화관광과** 033-370-2542, **정선군청** 033-562-3911, **충주시 관광과** 043-850-6721~4, **단양관광안내소** 043-422-1146
별마로천문대 033-374-7460, **정선 레일바이크** 예약 문의 코레일투어서비스 033-563-8787, ktx21.com



느리게 흐르는 낙동강은
퇴적물이 많이 쌓여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우려가 높다.

'가시고기'라는 환경 다큐멘터리로 널리 알려진 큰가시고기는 낙동강의 대표 어종입니다. 어린 알을 지키는 부성애가 강하며 알이 부화할 때까지 먹이 활동을 하지 않다가 알이 부화하면 수명을 다합니다. 가슴 로고는 낙동강의 'ㄴ'이며, 파란색은 푸른 생태와 맑은 강을 상징합니다.

낙동강

단위면적당 저수량 한강의 절반 불과

상류 가뭄 하류 홍수 해결한다

발원지인 강원 태백 황백산에서 부산 을숙도까지 도도하게 5백 킬로미터를 흐르는 낙동강.
낙동강은 한강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양대 산업 대동맥이다. 문화와 산업의 중심이라는 영광, 오염과 자연재해로 얼룩진 상처를 한 몸에 안은 낙동강 권역에선 지금 강을 되살리고 지역경제 회생을 모색하는 용틀임을 하고 있다.

#1 낙동강 상류 경북 구미대교 구간. 지난 5월 14일 이곳에서 측정한 낙동강 수위는 22.7미터를 기록했다. 이는 평소 갈수기 기준(23미터)보다 낮은 수치다. 이렇게 낙동강 수위가 낮아진 건 1984년 이후 처음이다. 이 때문에 구미시는 생활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해평취수장과 선산취수장 앞으로 흐르던 낙동강 물이 줄어 취수가 불가능해지자 구미시는 하류에 보를 쌓고 물을 끌어올리는 긴급조치를 취했다.

#2 낙동강 하류 경남 김해 구간. 지난 7월 이곳 둔치의 비닐하우스촌에서는 집중호우로 폐비닐과 농약통, 계분과 축분 등이 빗물에 젖어 낙동강 물을 오염시켰다. 이곳 오염원들은 빗물과 함께 낙동강으로 흘러들어 강물을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해양 어장을 망가뜨리고 적조현상의 원인이 된다. 둔치 내 경작에 대해 하천법에 따라 점용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무허가는 아니지만 홍수 때마다 강물을 오염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상류는 가뭄, 하류는 홍수로 점철된 낙동강. 죽어가는 낙동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의 한 축으로 추진되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낙동강 권역 순 공사비는 11조원. 전체 4대강 살리기 건설비의 약 60퍼센트에 이른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방증이다.

특히 낙동강은 농업용수와 산업용수 사용이 절실한데도 단위면적당 저수량이 4대강 가운데 가장 적어 치수 필요성이 지적돼왔다. 단위면적당 저수량은 한강을 기준으로 할 때 금강은 93퍼센트, 영산강은 62퍼센트인 반면 낙동강은 57퍼센트에 그친다. 또 제방 누수로 홍수와 침수 피해가 빈발해 2002년 8월 태풍 '루사'로 경남 함안의 백산제와 합천의 함안제가 붕괴돼 침수 피해를 보기도 했다.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이러한 낙동강의 자연재해 극복과 자연생태 회복,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낙동강에는 4대강 가운데 가장 많은 8개의 보가 건설된다. 이는 4대강 전체 16개의 절반에 해당한다. 8개의 보를 통해 낙동강에는 총 6억7천만 세제곱미터의 용수가 확보된다. 또 송리원댐(경북 영주)과 보현댐(경북 영천) 등 2개 댐이 신설되며 수해 예방을 위해 안동댐에서 낙동강 하굿둑까지 총 3백34.2킬로미터에 이르는 구간에 평균 1.3미터 깊이로 퇴적토를 준설할 예정이다. 이러한 준설량은 모두 4억4천만 세제곱미터로 4대강을 모두 합친 5억7천만 세제곱미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낙동강의 수질 개선을 위해 왜관, 고령, 남강지역 등은 핵심 관리지역으로, 상주, 구미, 창녕, 남강댐, 밀양, 낙동강 하굿둑은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돼 방류기준이 강화되는 등 수질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또 8개의 생태습지가 조성되며 낙동강 하굿둑에서 안동댐 사이에 7백43킬로미터에 이르는 자전거길도 만들어진다. 이 밖에 제방 축조와 보강(6백33킬로미터), 생태하천 조성(1백30킬로미터) 등 사업도 시행된다.

이러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낙동강 유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치수와 재해극복 이상이다.

전국을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강원권(강원), 충청권(대전·충북·충남), 전라권(광주·전남·전북·제주), 경북권(대구·경북), 경남권(부산·울산·경남) 등 6개 권역으로 나눴을 때 경북권의 건설 공사비 6조4천억원은 경북권 내에 9조1천6백억원, 그리고 경북권을 제외한 기타 지역에 3조5천2백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추진되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전국적으로 약 12조6천8백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갖는다.

경북 건설산업 취업유발 인원 7만명

또 경북권 내 취업유발인원은 9만3백명이고, 경북권을 제외한 기타 지역의 취업유발인원은 2만6천3백명으로 추정돼 경북권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전국적으로 약 11만6천6백명의 취업을 유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강 개발과 관련한 토목공사가 대량으로 시행돼 경북권 내 건설산업의 취업유발인원은 7만1천2백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 간 협력은 물론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무엇보다 공사 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와 지장물 보상과 관련해 주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경남권의 낙동강 살리기에 투자되는 건설 공사비 4조6천억원은 경남권 내에 6조8천억원, 그리고 경남권을 제외한 기타 지역에 2조3천1백억원의 생산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돼 부산과 경남지역에서 추진되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 건설공사비는 전국적으로는 약 9조1천1백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경남권 내 취업유발인원은 6만9천6백명, 경남권을 제외한 기타 지역 취업유발인원은 1만6천6백명으로 추정돼 경남권의 낙동강 살리기에 투자된 사업비는 전국적으로 약 8만6천2백명의 취업을 유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가운데 경남권의 건설산업 취업유발인원은 5만4천2백명이다.

이러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상북도다. 경북도는 정부의 4대강 살리기와 그동

동아DB



경북은 안동(사진)을 비롯한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대를 갖고 사업추진본부를 결성하는 등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동아DB

겨울 가뭄으로 메마른 바닥을 드러낸 임하댐의 모습.

안 도 자체적으로 추진해온 '낙동강 프로젝트'가 맞물리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최대 수혜지'로 떠오르고 있다. 2006년 취임한 민선4기 김관용 경북도지사의 핵심공약사업의 하나인 낙동강 프로젝트는 그동안 재원부족으로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으나 정부의 저탄소 녹생성장 정책,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주요 정책과 맞물려 탄력을 받게 됐다. 낙동강 프로젝트 가운데 낙동강생물자원관 조성사업은 이미 국책사업화되어 설계비 30억원을 확보해 추진을 앞두고 있다. 에코트레일 조성사업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자전거도로 조성사업과 연계돼 전액 국비로 추진될 계획이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실행에 옮긴 경북도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공원식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낙동강살리기사업추진본부를 꾸렸다.

지난해 12월 안동 2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시작해 전국에서 가장 먼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실행에 옮긴 경북도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7월 16일 공원식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낙동강살리기사업추진본부를 20여 명의 인원으로 꾸렸다. 이 팀에는 낙동강 프로젝트팀도 흡수 통합됐으며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시행되는 안동, 구미, 칠곡 등 낙동강 연안 시군 직원도 파견받아 구성했다.

낙동강살리기사업추진본부 조성규 주무관은 "현재 낙동강 살리기 사업 가운데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형공사인 보 설치, 댐 건설 등은 국토관리청 등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하도 준설, 생태하천사업 등 비교적 단순한 공사는 경북도가 추진하게 된다"며 "경북에는 13개 공구, 7천여 억원이 투입되는 하도 준설, 생태하천사업 등이 있다"고 밝혔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 추진본부는 낙동강 경북 구간의 총 사업비 5조4천억원의 집행을 총괄하며 하천 사업을 직접 발주하거나 감독하고 대외협력, 홍보 등 임무를 맡게 된다.

공원식 낙동강살리기사업추진본부장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 간 협력은 물론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무엇보다 공사 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와 지장물 보상과 관련해 주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역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해지구 하천전용 경작단체 보상협약 일괄 체결 완료

낙동강 하류 지역인 경상남도 역시 낙동강 살리기 사업 성공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12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처음 발표된 이후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지역 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15차례나 정부에 건의하기도 한 경남도에서는 지난 3월 16일 김태호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도의회 의장, 시군 단체장,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70여 명의 낙동강 탐사단이 낙동강 탐사에 나서기도 했다. 이들 탐사단은 창녕 남지에서 임해진 나루터까지 직접 배를 타고 낙동강 수계 오염의 심각성을 살피고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절박함을 적극 홍보했다.

이러한 경남도의 적극적인 관심은 지난 5월 13일 김해시와 김해지구 하천점용 경작단체 간의 보상협약을 일괄 체결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김해시 사례는 전국에서 처음 체결된 4대강 살리기 관련 보상협약의 표본으로 알려졌다.

경남도는 또 지역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1백대 1군 건설업체에 서한을 보내 도내 공사를 시공했거나 앞으로 수주할 경우 하도급 공정에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등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결짓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한편 낙동강 하구에 위치한 부산시는 올 3월 9일 낙동강 살리기 사업 추진단을 발족시켰다. 부산시 낙동강살리기추진단의 김남훈 계획담당관은 "낙동강 본류 공사구간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실시 설계용역 중이고 서낙동강 등 지류의 3개 공구는 부산시가 실시 설계 용역 계약을 앞두고 있다"며 "부산시 사업은 8월 6일 8개 컨소시엄이 입찰해 발주할 예정"이라고 현재 진행 상황을 전했다.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낙동강 살리기 이렇게 한다!



지도 일러스트 · 이우정

낙동강 살리기 주요 핵심사업

보	8개
농업용 저수지	31개
신규댐 건설	3개
준설	4억4000만m³
노후제방 보강	335km
생태하천	407km
자전거도로	743km

지난 6월 24일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는 낙동문화원, 낙동민속보존회, 국토와 환경연구소, 낙동강 맑은 물 시민포럼 등 낙동강 지역 11개 문화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낙동강사랑연대' 창립총회가 열렸다. 낙동강사랑연대는 앞으로 낙동강 유역 주민들에게 낙동강을 제대로 알리는 전설이나 민담 등을 발굴한 책과 낙동강 문화지도를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다. 김윤환 낙동강사랑연대 회장은 "일부 환경단체 등이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반대하지만 대안 없는 반대는 의미가 없다"며 "이미 시작한 정부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낙동강 하구를 가보세요. 썩은 물에 적조만 떠다닙니다. 일부 환경단체가 그냥 두라고 하지만 이미 많은 생활 오폐수가 무작위로 들어와 이대로 둔다면 중환자실로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낙동강 정비는 지금도 늦은 겁니다." 그는 "다만 낙동강을 그저 메우고 파내고 하는 것에는 찬성하지 않는다"며 "낙동강이 문화공간이 되고, 누구나 함께하는 강, 치유와 미래가 있는 아름다운 강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소망을 말했다. G

글 · 박경아 기자

4대강 살리기 첫 착공 경북 안동지구

'관광벨트 변신 중' 주민 표정 밝아

하회마을로 유명한 전통문화의 고장 경북 안동이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전초기지가 되고 있다. 낙동강 살리기의 첫 사업이 바로 안동에서 시행됐기 때문이다. 낙동강 살리기에 거는 안동 주민들의 기대와 미래에 대한 소망을 현지 목소리로 담았다.

"그래, 이번에도 결국 낙동강 하류 사람들을 위해 물 깨끗하게 보낼 궁리만 할 게 아니겠소? 물만 깨끗하게 관리하다 보면 어디 여기 사람들이 먹고사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오!"

낙동강 최상류계로 꼽히는 안동, 예천, 영주, 봉화, 청송, 영양 등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은 물 때문에 늘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 댐물, 강물 소리만 들어도 역정을 낸다. 왜냐하면 그동안 무려 33년 동안이나 안동호와 임하호 주변 전체가 자연환경보전지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서는 댐 상류와 하류 수역 낙동강 주변 5백 미터 이내도 '수변구역'이라고 해서 주택 신축마저 억제할 정도로 개발이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낙동강 상류지역 주민들 대부분은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시행 초기엔 "또 무슨 강 살리기냐" "하류 주민을 위해 수질관리만 하고 상류의 우리는 죽으란 말이냐"며 세차게 반발했다.

당초 안동지역은 한때 언급됐다가 취소된 한반도 대운하 구간에 끼지도 못했기에 더욱 그러했다. 하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종전에 단순히 '수질 관리'에만 매달리던 것과 달리 '친수



전통문화의 고장 안동이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 **주민들의 열망인 '꿈'이 이뤄지는 쪽으로 강 사업이 펼쳐지자 그동안 '개발'이라는 단어 자체를 잊어버린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차츰 바뀌어 이젠 오히려 기대에 차 있는 모습이다.**

공간 확보'라는 쪽으로 사업 방향이 달라진 것을 알게 되면서 주민들의 초기 반발은 크게 완화된 상태다.

안동지역은 지난해 12월 29일 4대강 살리기 첫 사업인 낙동강 안동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 착공식이 안동시 영호대교 둔치에서 열리면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시작을 알린 곳이기도 하다.

먼저 안동지역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 안동댐과 임하댐 방류구 아래쪽 낙동강 일원의 개발에 집중돼 있다. 2개의 댐 저수량 규모는 소양강댐 규모와 맞먹을 정도여서 웬만한 집중호우에도 댐 바로 밑 하류지역의 강 수위가 달라지지 않는다.

이를 이용해 정부와 안동시는 낙동강 본류와 반변천이 합류하는 안동시 용상동과 정하동, 법흥동 일원에 백조공원을 꾸민다는 계획이다. 강을 가로지르는 보(洑)를 막고 '텃새화'한 백조를 풀어놓아 사람과 강, 백조가 한데 어우러지는 친수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벌써 일본과 독일 등의 사례를 본보기로 '백조 텃새화' 연구에 착수했으며 조만간 백조 인공사육장도 지을 예정이다.

생태하천 복원하고 관광자원 개발… 주민 기대 부풀어

댐 수문 아래 강변에 조성된 넓은 둔치는 또 시민과 안동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친수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공 개울과 여울을 만들어 다양한 물고기들이 노닐게 하고 은어 여울낚시터와 송어 플라이낚시터를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다듬어낼 예정이다.

강이 없던 지역에 인공으로 조성하는 게 아니라 댐 축조 전 강이었고 백사장이었던 곳에 다시 물을 흐르게 해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던 그 옛 강을 복원하는 작업이다. 이미 이곳은 자전거도로가 벚꽃길과 함께 강변을 따라 조성돼 있어 다른 지역처럼 자전거도로를 새로 꾸밀 필요가 없다.

노후화된 교량을 리모델링하는 작업도 안동 사람들의 관심사다. 안동지역에서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50억원의 예산을 받아 6·25전쟁의 상흔이 그대로 남아 있는 안동교 교량을 이용해 '다리 위의 하회마을'로 변신시켜 선보일 계획이다.

하상을 파고 들어가 암반 위에서부터 파일을 박아 매우 튼튼한 교량 기초를 활용해 상판과 난간, 보를 보강한 뒤 교량 위에 정자와 누각, 대형 솟을대문 등 다양한 전통한옥이 줄줄이 들어차고 이곳에서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열릴 수 있도록 한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흉물이 된 채 방치된 폐교량이 새로운 전통문화



동아DB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시작이기도 했던 안동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 착공식.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작업이다.

강 아래쪽엔 그 옛날 부산에서부터 거슬러 올라온 소금배들이 나루터에서 황포 돛을 내리고 머물러 있다. 강변 둔치엔 노천 풀장이 꾸며지고, 다리 위에까지 퍼올린 강물은 형형색색의 물 미끄럼틀을 타고 흘러내려 풀장으로 다시 이어진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안동 시민들이 컴퓨터와 TV 앞에서 벗어나 안전한 낙동강 친수공원으로 나오도록 한다는 꿈 같은 계획. 낙동강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 강변 마을 상권도 되살아나고….

실제로 이 계획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는 등 이번에는 주민들의 열망인 '꿈'이 이뤄지는 쪽으로 강 사업이 펼쳐지자 주민들의 설렘은 적지 않다. '낙동강특별법' 등 강 최상류지역을 이중 삼중으로 꽁꽁 묶어둔 낙동강 수질관리 정책으로 그동안 '개발'이라는 단어 자체를 잊어버린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차츰 바뀌어 이젠 오히려 기대에 차 있는 모습이다.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축제가 바로 낙동강변에서 펼쳐진다. 영주 인삼축제도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내성천 지류인 서천변에서 열리고, 봉화 은어축제가 내성천변에서 매년 개막되는 등 낙동강 상류수역 축제 거의 대부분도 강변에서 펼쳐진다. '친수공간 개발'이라는 목표로 추진되는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경북 안동 구간 공사가 완료될 경우 낙동강 상류를 따라 형성되는 새로운 전통문화 벨트가 자연스럽게 이어져 관광자원화될 것으로 보는 긍정적 전망이 안동 사람들 사이에서 우세하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조직위원회 권두현 사무처장은 "안동과 임하 양 댐이 들어서면서 상류로부터 모래 유입이 30년이나 끊겨 강바닥이 드러나고 있는 낙동강 상류는 하상 유지를 위한 토목공학적 차원에서도 보 설치가 필요하다"며 "새롭게 탈바꿈하는 강물을 단순 수자원으로만 취급할 게 아니라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물이 될 수 있도록 낙동강 전통 강 문화 복원을 위해 지속적이고도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G

글 · 권동순(매일신문 사회2부 기자)

김관용 경북도지사

“4대강 살리기는 낙동강 프로젝트 단비”

1천3백만 영남인의 젖줄 낙동강. 옛날 가야와 신라, 유교문화를 꽃피웠고 오늘날 산업발전의 대동맥으로 한국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큰 중심축인 낙동강 살리기가 이뤄지는 경북도의 김관용 도지사로부터 강 살리기에 거는 기대와 설계를 들었다.

“영남의 문화와 삶이 녹아 있는 낙동강은 해마다 겪는 수해와 물 부족, 오염으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위험한 강’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러한 강을 되살리고 강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낙동강 살리기 사업입니다.”

김관용(66) 경북도지사는 4대강 살리기의 한 축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경제와 환경을 모두 살리는 한국형 녹색뉴딜사업’으로 풀이했다. 즉, 낙동강 살리기는 홍수와 가뭄, 물 부족, 물 오염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하천복원 프로젝트’,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 생태환경을 조성하는 ‘환경복원 프로젝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만드는 ‘경제발전 프로젝트’, 새로운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발전 프로젝트’의 4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1995년 이후 세 차례 구미시장을 지낸 김 지사는 2006년 민선 4기 경북지사에 취임했다. 초등학교 교사와 세무서 근무 등 다양한 경험을 지닌 김 지사는 2007년 제7회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행정혁신 부문에서 수상하는 등 경북 도정에 새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동아DB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낙동강 살리기가 경북 발전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경북지역 경제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낙동강 살리기는 경북의 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획기적 전기(轉機)가 될 것입니다. 현실 경제 측면에서 보면 위기에 처한 지역 건설업을 구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낙동강 살리기의 전체 사업비는 9조8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경북지역 사업비는 5조4천억원 정도입니다. 미래 관점에서 보면 낙동강 권역 전체에 새로운 강 문화권과 강 경제권을 형성해 구미, 포항 이외에 새로운 성장 축을 하나 더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 낙동강 살리기 사업계획에 경북도와 지역 주민의 의견이 대체로 잘 반영돼 있습니다. 다만 좀 더 많은 지역 건설업체가 낙동강 살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를 확대하는 부분이 다소 미흡합니다.

낙동강은 어떤 부분에서 개선이 시급합니까.

강은 흘러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낙동강은 수량이 부족하고 주기적인 홍수로 '죽음의 강'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었습니다. 통계상으로 볼 때에도 낙동강은 홍수와 가뭄에 취약해 하천 정비 및 복구 사업비가 국가 전체 정비와 복구 사업비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지난 10년간 홍수 등으로 발생한 재해 피해액이 6조8천억원, 복구비가 11조원 투자됐습니다. 낙동강 살리기를 위해서는 보와 중소 규모 댐, 농업용 저수지를 만들어 '물그릇'을 늘리고 홍수조절 능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낙동강 살리기가 '성공적인 국책사업'으로 후대에 남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낙동강은 1천3백만 영남인의 젖줄입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인 낙동강을 되살려 수량을 확보하고 수질도 개선하는 이 사업이 도민들의 공감대 속에 원활하게 추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천부지 보상, 준설토 처리 등과 관련한 민원에 적절히 대응하고 이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등 사업추진 과정 역시 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수질오염, 사고 발생, 취수 및 정수대책, 생태계 훼손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경북도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추가로 반영할 부분이 있습니까.

낙동강 살리기 사업계획에 경북도와 지역 주민의 의견이 대체로 잘 반영돼 있습니다. 다만 좀 더 많은 지역 건설업체가 낙동강 살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를 확대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북도는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에 관계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가치를 높일 아이디어나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예부터 강을 따라 문명이 발생하고 도시가 형성됐습니다. 특히 낙동강에는 13개 고대문명이 발생하고 번창했습니다. 이를 복원하고 세계적인 문화 브랜드로 키워나가기 위해 문화와 레저 부문에 집중코자 합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다양한 수상레저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상징물을 설치하며 강변 트레킹, 습지 탐방 등 관광자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다 우리 도가 앞서 추진 중이던 '낙동강 프로젝트'와 연계해 유교문화와 고대 가야문화를 복원하고 에코트레일, 상징타워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낙동강 살리기를 지켜보는 지역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십시오.

낙동강 살리기는 민족적인 사업이고 거대한 역사의 강을 만드는 것입니다. 경북의 운명이 걸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강을 통해 먹고살고 환경도 지키는 성공 모델을 경북에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G 글 · 박경아 기자

동아DB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차근차근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5월 7일 경북 고령군에서 사문진교 확장·준공 기념 낙동강 문화 개통식이 열렸다. 왼쪽 끝이 김관용 지사.

강 따라 1박2일… 문화가 흐르는 낙동강

먹 내음 물씬~ 하늘이 내린 풍광을 만나다

압록강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고 넓게 흐르는 강이 낙동강이다.
완만한 평지를 낙낙하고 유려하게 흐르는 강, 높은 산허리를 돌아가며 굽이굽이 흐르는 낙동강에는
구석구석 우리네 삶을 닮은 문화가 살아 숨 쉬고 있다.

봉화→안동→영주

낙동강 상류인 경북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에 있는 금강소나무숲을 둘러보는 것으로 여행을 시작한다. 누구나 들어와 나무를 심고 가꾸며 산림체험을 하도록 개방한 '국민의 숲'. 금강소나무가 군락을 이룬 숲길 산책에는 왕복 1시간 남짓 걸린다.

낙동강 주변에는 전통 민속마을이 여럿 있다. 영주시 부석면에 있는 한과로 유명한 닭실마을은 조선 중종 때 재상을 지낸 충재 권벌이 터를 잡으면서 유명해진 곳이다. 안동 권씨 집성촌으로 수백년 된 고택들이 많다.

닭실마을에서 나와 915번 지방도를 따라 내려오다 36번 국도로 갈아타고 봉화 방면으로 가면 탄산 성분이 다량 함유된 다덕약수가 나온다. 다시 봉화에서 청량산 쪽으로 가다 보면 낙동강 줄기를 가장 잘 굽어볼 수 있는 곳이 나타난다. 일명 범바위 전망대. 이곳에 서면 감입곡류(嵌入曲流)의 전형적인 하천 모습이 한눈에 들어온다.

낙동강 상류에서 가장 큰 사찰이 청량산도립공원 내에 자리한 청량사다. 신라 문무왕 때 원효대사가 창건한 사찰이다. 청량사 뒤편으로 보살봉이 내려다보고 있다.





천년 고찰 남장사(왼쪽)와 빼어난 절경의 경천대(아래).

안동은 옛 선비들의 흔적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유서 깊은 고장이다. 조선 연산군 시절 형조참판 등을 역임한 농암 이현보도 이 중 한 사람인데 농암의 자손들이 5백여 년 동안 대를 이어 살아오고 있는 도산면 가송리에서는 전통숙박체험을 할 수 있다(농암종택 054-843-1202).

종택에서 오솔길을 따라가면 퇴계 이황이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예찬했던 '녀던길'이 나온다. 녀던길은 걷기 여행객들에게 안성맞춤이다. 이 길 끝에 퇴계 선생이 후학을 가르친 도산서원이 있다. 안동을 여행하면서 들르지 않을 수 없는 곳이 하회마을이다. 낙동강 줄기가 마을을 휘감아 돈다고 해서 '하회(河回)'다. 서애 유성룡의 종가와 남촌·북촌댁이 하회마을을 대표한다.

하회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서애 선생이 풍산서당을 옮기면서 세운 병산서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원으로 꼽히는 병산서원 만대루에 올라앉으면 낙동강과 건너편 푸른 절벽의 풍광에 옛 선비의 풍류가 부럽지 않다.

옛 선비 흔적 가득한 유서 깊은 안동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는 전형적인 '물돌이마을'이다. 삼면이 물에 접해 '물이 돌아가는 마을'이라고 해서 '수도리(水島里)'라 부른다. 이곳의 가옥 48채 중 16채가 백년 넘은 고택이다. 반남 박씨와 예안 김씨의 집성촌으로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의 거점이 되기도 했다.

영주시가 자랑하는 소백산 자락의 사찰 부석사. 신라 문무왕 16년(676년) 의상대사가 창건한 절이다. 이곳에는 배흘림기둥으로 잘 알려진 국보 제18호 무량수전 외에도 조사당 벽화와 자인당, 안양루 등 눈여겨볼 문화재들이 많다.

소백산 남쪽 순흥면으로 발길을 옮기면 소수서원이 있다. 조선 중종 38년(1543년)에 지어져 백운동서원으로 불리다가 퇴계 선생이 풍기군수로 부임할 당시 소수서원으로 이름을 바꿨다. '소수(紹修)'는 '이미 무너진 교학을 닦게 한다'는 뜻. 소수서원 부근 선비촌 마을은 전통문화체험공간으로 민박체험 숙박을 할 수 있고, 옛 방식으로 지은 음식도 맛볼 수 있다.



범바위 전망대에서 바라본 낙동강 특유의 감입곡류 하천.

문경→상주

문경 여행은 새재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영남과 한양을 잇는 길목이자 군사적 요충지였다. 조선시대에는 영남에서 한양으로 통하는 가장 큰 길이었다. 새재는 최고점의 해발고도가 6백43미터인 높은 고갯길이지만 생각보다 험하지는 않다. 1관문에서 3관문까지 6.5킬로미터 구간이 황토로 보존돼 맨발로도 걷기에 좋다. 길옆 계곡에 드라마 〈왕건〉 세트장이 자리하고 있다.

산북면 김룡리에 있는 김룡사는 신라 진평왕 10년(588년) 운달조사가 창건했다. 임진왜란 때 소실됐다가 1624년 다시 지었다. 김룡사는 멋진 숲길을 품고 있다. 2킬로미터쯤 되는 참나무 숲길을 지나면 우람한 전나무가 도열하듯 서 있다.

오정산 능선을 따라 축조된 마성면 신현리의 고모산성에도 올라보자. 해발 2백31미터의 북쪽 산봉우리를 기점으로 능선을 마름모꼴로 잇고 있다. 고모할미와 고부할미가 경쟁을 하며 하룻밤 새에 쌓았다는 전설이 있는 이 산성은 신라 때 방어선을 구축했던 곳. 문경 여행을 마치고 문경온천에 들러 휴식을 취하면 좋다. 개장한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물이 좋다고 소문이 자자하다.

상주에서 낙동강변을 여행하기 전 들러볼 곳이 있다. 공검면에 있는 연꽃 저수지인 공검지다. 삼한시대 3대 저수지 중 하나였던 곳이다. 화려한 여름 연꽃이 길 가던 사람들을 유혹한다.

사벌면에 가면 옛 매호초등학교 자리에 상주예술촌이 있다. 2002년 11월 개촌한 상주예술촌은 회화작가와 사진작가, 연극·풍물·대중음악팀들이 입주해 활동하고 있다.

상주예술촌에서 남쪽으로 달리면 낙동면 낙동마을이 나타난다. 낙동강이라는 강 이름을 낳게 만든 낙동마을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사벌면에 상주가 자랑하는 경천대가 있다. 빼어난 경치를 품고 있어 낙동강의 '제1경'으로 꼽히는 곳이다.

공검지 여름 연꽃… 지나는 발걸음 유혹해

낙동강변 기암절벽에 뿌리를 내린 소나무가 경탄을 자아내게 한다. '하늘이 스스로 내린 경치'라고 해서 '자천대(自天臺)'라고도 불린다. 경천대는 산책하기에 좋은 곳이다. 경천대 앞 인공폭포 앞에서 시작해 돌탑 길과 전망대, 경천대, 출렁다리 등을 돌아 다시 인공폭포까지 오는 데 1시간쯤 걸린다.

상주시 남장동에 가면 그리 크지는 않지만 천년 역사를 지닌 남장사가 있다. 김천 직지사의 말사(末寺)로 신라 흥덕왕 때 지은 사찰이다. 보광전과 관음선원에 목각괘불탱과 철조불 등 보물이 있고 사찰로 올라가는 길가에도 석장승과 같은 지방문화재가 있다. 남장사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마을이 곶감마을이다. 가을이면 곶감을 깎고 말리는 풍경을 구경할 수 있다. 마을 초입의 상주자전거박물관에서는 자전거를 빌려 탈 수도 있다. G

글과 사진 · 박상대(여행스케치 대표)

●● **봉화군 문화체육관광과** 054-679-6394, **안동시 관광안내소** 054-840-6397, **영주시 문화관광과** 054-639-6062, **문경시 문화관광과** 054-630-6393
문경시 관광안내소 054-550-6414, **상주시 문화체육팀** 054-537-6095

동아DB



금강 살리기 사업으로 금강 주변에 역사, 문화, 레저, 생태 테마공원이 조성된다.

금강

백제 문화유산 살리는 종합발전사업



한국 특산어종인 어름치를 금강 캐릭터로 만들었습니다. 산란 후 그 위를 잔자갈로 덮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산란탑이 깊은 곳에 만들어지면 가뭄이 들고, 물가에 만들어지면 홍수가 난다고 해서 '물 속 기상 예보관'이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가슴 로고는 금강의 'ㄱ'이며, 노란색은 'Gold River'인 금강을 상징합니다.

금강 살리기는 '백제 문화유산과 연계한 지역 발전'을 목표로 시행된다. 금강을 따라 찬란했던 백제 문화가 되살아나고 자연생태공원과 레저스포츠 시설이 조성되면 금강 유역의 지역경제와 주민들의 삶은 한층 좋아질 것이다.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비단처럼 아름답다고 해서 그 이름도 금강이다. 금강은 전북 장수군 뜬봉샘에서 시작돼 충북과 충남을 두루 거쳐 서해까지 4백1킬로미터 천 리를 흘러간다.

금강 유역 사람들은 예부터 금강의 물로 농사를 짓고 금강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살았다. 철새들은 금강 하구에서 휴식을 취하고 겨울을 났다. 금강은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꽃피운 곳이기도 하다. 특히 찬란했던 백제 역사문화 유적은 금강을 따라 펼쳐져 있다.

하지만 지금 금강 유역은 풍요의 땅이 아니다. 수질오염으로 물고기와 철새가 사라져가고 생태계 파괴로 지역 주민들의 삶도 위태로워졌다. 경제적으로도 주변 다른 지역보다 낙후돼 있다.

이젠 충청의 젖줄 금강이 되살아나야 한다. 정부는 지난 6월 8일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통해 금강 유역에 총 2조8천9백21억원을 투입해 금강 수계의 노후제방 보강, 토사 퇴적구간 정비, 하천 자전거길 설치, 하천 생태계 복원 등을 추진하는 금강 종합정비계획을 발표했다. 금강 살리기를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자연재해를 예방함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금강 살리기 사업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용수 확보량과 홍수조절 용량을 늘리고,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계를 복원하며, 강 중심의 지역 발전을 위해 금강 뱃길을 복원하고 강변에 지역 주민을 위한 복합 문화레저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전체 예산 가운데 본사업에 2조4천7백27억원, 직접연계사업에 3천1백81억원, 용담댐과 대청댐 하류부 사업에 1천13억원이 들어간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추진하는 금강 본류 사업에는 2011년까지 1조6천5백98억원이 사용된다. 총길이 1백24킬로미터의 41개 생태하천 조성에 5천7백72억원, 하도 정비에 3천7백20억원, 71킬로미터에 이르는 26개 둑 보강에 2천3백71억원, 2백48킬로미터의 자전거도로 개설에 3백3억원, 3개의 자연형 보 설치에 2천23억원이 쓰인다.

가동보 · 도심하천 복원 등으로 수질 개선

전체 11개 공구 가운데 가장 먼저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에 흐르는 금강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지난 6월 12일부터 시작됐다. 나머지 사업들도 2011년까지 끝내는 것을 목표로 설계 · 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발주해 10월 말쯤 착공될 예정이다.

금강 살리기 사업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용수 확보량과 홍수조절 용량을 늘리고,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계를 복원하며, 강 중심의 지역 발전을 위해 금강 뱃길을 복원하고 강변에 지역 주민을 위한 복합 문화레저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우선 용수 확보량을 늘리기 위해 금남보, 부여보, 금강보 3개를 설치해서 1억1천만 세제곱미터의 물을 확보한다.

보 설치에 대해 수질오염의 위험이 있다거나 운하의 전 단계가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금강은 최대 유량과 최소 유량의 비율인 유량변동계수가 3백으로 매우 크다. 이는 홍수기에는 물이 넘치고 갈수기에는 물이 줄어 가뭄과 수질오염을 부를 위험이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일정하게 강물을 유지 관리하는 것은 수질오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또 보는 모두 수문이 전면 개방되는 가동보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하천 바닥 부분의 수문을 열어 오물 등을 씻어 보낼 수 있어 수질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금강 살리기 행복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 박장환 감리단장은 "보의 높이가 4미터에 불과하기 때문에 화물선이 다닐 수 없다"며 "보는 물 부족에 대비하고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충분한 물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만일의 경우 홍수가 닥쳐도 문제가 없도록 1억 세제곱미터까지 물을 조절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물길을 정비하고 농업용 저수지와 저수량을 늘리며 71킬로미터의 노후제방을 보강한다.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63곳의 하수 및 폐수 처리장을 확보하고 1백33개의 마을 하수도를 정비하며, 6개의 가축 분뇨 처리시설을 신축하거나 증설한다. 1백10개의 TP(물속에 포함된 인의 총량) 처리시설을 보강하고 68개의 하수관거(여러 하수구에서 하수를 모아 하수처리장으로 내려보내는 큰 하수도관)를 확대한다. 또한 불특정 배출경로를 통해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으로 빗물 침투 저류시설, 생태 유수지, 웅덩이 및 생태 저수지를 늘린다.

생태복원을 위해서는 하천 둔치의 농경지를 정리하고 6개소 10킬로미터의 생태습지를 조성한다. 또 국가하천 1백99킬로미터에도 생태하천을 조성하며 8개 지천과 1개의 도심하천도 복원한다.

금강 살리기 사업지구 안에는 1천4백36 농가가 여의도 면적


동아DB

금강은 수상 스포츠를 즐기기에도 안성맞춤이다. 금강 살리기가 이뤄지면 관광객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의 19배가 넘는 1천6백64만1천 제곱미터의 땅에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약, 비료 등이 강에 흘러들어가 수질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됐다. 금강을 생태하천으로 되살리기 위해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강변 경작지에 대한 보상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복합공간으로는 금강 상·하류를 잇는 2백48킬로미터의 자전거길을 만든다. 수중보도 지역의 역사와 전설을 담아 랜드마크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면 부여보는 낙화암과 계백장군의 역사와 전설을 담아내고, 공주의 금강보는 처녀곰과 나무꾼에 얽힌 고마나루 전설을 살려서 만든다는 것이다. 이미 외국에는 지역 명소에 이야기를 입혀서 관광객을 끌어 모으는 '스토리형 명소'가 많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강 살리기 사업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시행된다. 연기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 건설사업과 연계된다. 신도시와 어우러지는 하천경관과 친수공간을 조성해 '명품 세종시' 건설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충남도청 치수방재과 이강섭 주무관은 "금강의 물이 깨끗해지고 강변에 자연생태공원과 레저스포츠 시설이 조성되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내륙에 비해 낙후된 지역경제도 살아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강 살리기 사업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시행된다. 연기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 건설사업과 연계된다. 신도시와 어우러지는 하천경관과 친수공간을 조성해 '명품 세종시' 건설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공주와 부여, 논산과 청양지역은 백제 역사유적과 연관된 친환경 테마파크와 수중보를 조성해 역사 복원은 물론 관광기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서천지역은 해상과 육상 생물이 공존할 수 있는 생태계의 보고(寶庫)로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그러므로 금강 살리기 사업은 단순한 '강 살리기'가 아니다. 금강과 주변지역의 개발은 물론 백제 문화와 연계한 생태, 경제, 문화 등 종합발전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서 금강 살리기를 백제 문화유산과 연계한 지역발전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단순한 치수나 토목공사가 아니라 금강을 중심으로 충청지역이 새롭게 탄생하는 사업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의 '금강 살리기 사업'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도 '문화가 흐르는 금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안에 별도의 마스터플랜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7월 8일 금강 살리기 사업계획 현장을 시찰한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도 "섬세한 백제 문화자원과 철새 도래지, 갈대 군락지 등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된 금강 유역의 우수한 환경을 최대한 활용해 다양한 문화시설과 천혜의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곳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공주~부여를 연결하는 67킬로미터의 뱃길을 복원해 문화관광로를 마련할 계획이다. 충남도도 '옛 물길 복원, 옛 뱃길 복원을 통한 금강 르네상스 구현'을 목표로 금강권 각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총 20건의 사업을 정부에 건의했다. 공주, 부여 등 지자체들에게도 금강 뱃길 복원은 숙원사업이다. 이미 금강에서는 유일하게 황포돛배를 운항하고 있는 부여시는 뱃길을 통해 백제 문화관광이 활성화되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물길을 이용한 치수, 물류, 문화관광 산업 등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레저스포츠 시설 조성해 관광자원 활용

금강 유역 주민들도 금강 살리기 사업이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충남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주민 강경돈 씨는 "금강 살리기 사업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일거리도 생기고 소비도 늘어나지 않겠느냐"며 "지방에도 돈이 돌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금강 살리기 사업으로 충청권 내에 4조7백억원, 충


동아DB

금강 둔치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금강 살리기 사업으로 둔치의 농경지를 정리해 생태하천으로 되살린다.



금강 살리기 주요 핵심사업

보	3개
농업용 저수지	30개
준설	5000만㎥
노후제방 보강	71km
생태하천	124km
자전거도로	248km
공주~부여 뱃길 복원	67km

지도 일러스트 · 이우정

청권 외 지역에 1조7천1백억원의 생산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 이로 인한 충청권 내 취업유발인원은 4만1천4백명, 충청권 외 지역은 1만1천9백명의 취업자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건설산업 취업유발인원은 3만3천1백명으로 추정된다.

지역 업체의 의무참여 비율을 높여 투입자금이 지역에 머물도록 한 것도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6월 말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한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가 시행된다. 일반 공사는 40퍼센트 이상 지역 업체를 참여시켜야 하고, 설계에서 시공까지 맡는 턴키 공사는 20퍼센트 이상을 지역 업체의 몫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공사비가 풀리면 그중 일부는 지역 건설업체를 통해 지역경제로 스며드는 것이다.

금강은 백제의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강이다. 금강 유역 주민들은 금강 살리기 사업으로 찬란했던 백제 문화가 되살아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그리고 새만금 사업과 연계해 금강 유역이 황해시대의 중심지가 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G

글 · 이혜련 기자

금강 살리기 선도사업 충남 연기군 대평리를 가다

"멱 감고 물고기 잡는 생태하천으로"

금강 살리기 선도사업이 시작된 충남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에서 만난 주민들은 금강 살리기에 대해 큰 기대를 하고 있었다. 금강에서 멱 감고 물고기를 잡았던 어린 시절처럼 금강이 다시 깨끗해지고, 외지인들이 많이 찾아와서 지역경제가 살아났으면 좋겠다고 했다.



금강 살리기 선도사업이 시작된 충남 연기군 금남면의 금강변. 9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기 위해 도로를 닦아놓았다.

"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보니까 다들 환영하죠.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아 걱정인데, 금강 살리기 사업으로 경제가 좀 나아지지 않겠어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일하는 사람들이 이 동네에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담배라도 살 테니까요."

충남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버스정류장 앞 대평주유소에서 일하는 강경돈(28) 씨는 공사 차량이 오가면 주유소도 더 잘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금강 인근에서 농사짓던 사람들은 떠나야 하니까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금강을 정비하는 것은 환영입니다. 강물은 막힘없이 흘러야죠. 장마가 지고 대청댐 방류량이 1천5백 톤 이상이 되면 강물이 넘쳐 침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둔치에 공원도 조성한다니까 이 동네가 좋아지지 않겠어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땅이 수용돼 남면 종촌리에서 금남면 대평리로 이사했다는 이규창(58) 씨도 금강 살리기 사업이 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평생 금강 옆에서 농사를 지어온 정명자(65) 씨는 금강 살리기 사업으로 강이 다시 깨끗해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어렸을 때는 여기서 멱 감고 물고기를 잡으며 놀았어요. 그때는 재첩도 많았는데 지금은 없잖아요. 물고기는 지금도 있지만 기름 냄새가 나서 못 먹어요."

금강 살리기 사업 11개 공구 가운데 가장 먼저 공사가 시작된 연기군 금남면에서 만난 주민들은 금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었다.

물고기 잡아도 냄새나서 못 먹어

금강 살리기 선도사업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인 연기군 일대의 금강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22일 첫 삽을 떴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 주변 금강과 미호천 17.3킬로미터 구간을 2011년까지 2천45억원을 들여 신도시와 어우러지는 하천 경관과 친수공간을 조성해 '명품 세종시' 건설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항구적인 재해 예방을 위해 제방 23킬로미터를 축조하고, 친환경 소(小)수력발전시설 1개, 수질 정화를 위한 인공습지와 자연습지 각각 1개, '가람마루' '비단여울' 등 테마공원,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등을 조성한다.

> 강물을 살리는 것은 물론이고 둔치에는 자연과 조화된 친수 레저공간과
> 문화 예술공간을 조성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태양광 및 소수력발전으로
> 청정 에너지를 생산해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강은 치수사업이 잘돼 있는 편이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서면서 2백 년 빈도의 홍수에도 견딜 수 있도록 제방을 보강해 안전한 하천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강물을 살리는 것은 물론이고, 둔치에는 자연과 조화된 친수 레저공간과 문화 예술공간을 조성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태양광 및 소수력발전으로 청정 에너지를 생산해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강 살리기 행복지구 생태환경조성사업' 박장환 감리단장은 안전한 하천, 살아 숨 쉬는 하천, 문화가 흐르는 하천,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사업의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기관 최초로 지역 업체 의무 공동도급제(일반 공사는 40퍼센트 이상 지역 업체를 참여시키고, 설계에서 시공까지 맡는 턴키 공사는 20퍼센트 이상 지역업체를 참여시킴)를 도입했고, 시행 과정에서도 지역 업체와 인력 및 자재를 우선 참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생태습지 6개 조성… 본류 2급수까지 끌어올려

박 단장의 안내로 찾은 공사 현장은 아직은 한가했다. 공사를 하기 위한 길만 닦아놓은 상태로 본격적인 공사는 설계 심의와 보완이 끝나는 9월부터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금강 상류인 이곳은 강폭이 1킬로미터 정도로 그리 넓지 않고 곳곳에 퇴적 구간이 많다. 수심도 들쭉날쭉해 1미터50센티미터가 안 되는 곳은 준설 공사를 통해 물 흐름을 좋게 할 계획이다. 박 단장은 '자연을 건드리는 것은 무조건 환경 파괴'라고 보는 시각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이 염려하듯이 콘크리트를 발라서 강을 획일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자연이 수시로 만드는 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생태하천을 만드는 것입니다."

수변공원과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이 조성될 둔치에는 아직 거두지 못한 농작물이 남아 있었다. 금강 살리기 사업 지구 안에는 1천4백36 농가가 여의도 면적의 19배가 넘는 1천6백64만 1천 제곱미터에 점용 허가를 받아 농사를 짓고 있다. 금강 살리기 사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작지에 대한 보상작업을 하고 있고, 금강 살리기 선도사업이 시작된 이곳에서는 이미 보상이 끝난 상태다.

"지난해까지는 여기서 농사를 지었죠. 지금은 지난 가을에 파종한 것까지만 거두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식량 증산을 위해 하천 둔치도 농지로 활용하도록 했지만 농약, 비료 등이 강으로 흘러들면서 강이 오염되는 원인이 됐습니다. 하천의 농경지를 정리하고 정화능력이 뛰어난 습지식물을 심으면 물이 살아날 것입니다."

생태하천으로의 복원을 위해 금강에는 6개의 생태습지가 조성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현재 2급수 이하인 금강 본류는 2급수, 3급수 이하인 미호천 등 금강 지류는 3급수로까지 수질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농사짓는 물에서 낚시가 가능하고 수영할 수 있는 물로 만든다는 것이다.

충남지역에서는 금강 살리기로 주변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이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금강을 중심으로 하는 백제문화관광이 활성화되리라고 보기 때문이다. 대평리 주민들도 이구동성으로 "관광객 등 외지인들이 많이 찾아와 이 지역에 돈이 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G

글 · 이혜련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에서 만난 이규창 씨(왼쪽)와 강경돈 씨는 금강 살리기 사업이 이뤄지면 동네가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구 충남도지사

"금강이 살면 충남 곳곳이 발전한다"

금강은 찬란한 백제문화를 꽃피웠고 오늘의 충청을 키워온 젖줄이다. 이완구 충남도지사는 금강을 다시 살려 지역 경제발전을 앞당기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끌 기회로 활용하고자 한다.

"굽이굽이 흐르는 곡류(曲流)의 미학을 품고 흐르는 비단 물길 금강은 오늘의 충청을 키워온 젖줄이자 희망과 번영의 강입니다."

이완구(58) 충남도지사는 7월 초 대전일보사와 충남도역사문화원이 주최한 사진전 '금강의 어제와 오늘전' 개막식에 참석해 이렇게 금강을 예찬했다.



이완구 충남도지사는 금강 살리기 사업이 충청권 공동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금강은 찬란한 백제문화를 꽃피웠고 곳곳에 장인의 숨결이 깃든 수많은 문화재와 유물을 빚어낸 충청인의 젖줄이다. 다가올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충청인이 금강에서 미래의 새로운 가치를 재발견해야 한다."

이 지사의 축사에는 금강 살리기에 대한 그의 생각이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그는 금강 살리기 사업을 충남지역 경제발전을 앞당기고 홍수와 환경파괴로부터 지역을 지키며 지역균형발전을 꾀할 기회로 활용하고 싶어 한다. 꽤나 '실리적인 접근'이다. 금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이 지사의 생각과 사업 추진 방향 등을 들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지금 시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는지요.

문명의 뒤에는 강과 숲이 있다고 합니다. 물은 생명과 삶을 영위함에 있어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소중한 자원이죠.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홍수 피해를 막는 '생존사업'이자, 수상 레저와 문화를 창출하는 '문화사업'입니다. 세계적으로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사회간접자본 투자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경기를 진작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일부에서는 4대강 살리기가 대운하 사업의 전 단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익히 들어 알고 있죠. 하지만 지난 6월 29일 대통령께서는 임기 중에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언론을 통해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한 만큼 진정성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운하 사업은 배를 운항하기 위해 최소 6미터 이상 수심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로를 구축하고 유량을 확보하며 운항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홍수 방지를 위한 제방 축조, 천변 저류지 조성, 하도 정비와 환경 개선을 위한 인공습지 조성, 친수공간

> 백제역사재현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체류형 관광을 유도할 테마파크를 지을 계획입니다. 백제권 개발사업의 하나로 실시할 예정이던 공주 곰나루 수변공원과 호암지구 수변공원 설치사업을 금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할 생각입니다.

동아DB



행정복합중심도시와 연계된 금강 살리기 사업이 진행될 충남 연기군 일대 금강의 모습.

확보를 위한 자전거길과 산책로 조성 등이 내용입니다. 이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운하 사업의 성격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대국민 화합 차원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충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강 살리기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진척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모두 9개 공구로 총사업비는 1조7천1백30억원입니다. 하도 정비(1백6킬로미터), 보 설치(3곳), 생태하천 조성(1백6킬로미터), 제방 보강(29킬로미터), 자전거길 조성(1백92킬로미터) 등이 구체적인 사업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 5개 공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4개 공구는 충남도가 직접 추진합니다.

선도사업인 '행복도시지구'는 설계 · 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6월 12일 착공해 추진 중입니다. 6개 지구는 설계 또는 시공업체 선정 중에 있고, 나머지 2개 지구는 오는 10월 중 설계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금강사업팀' 실무진이 휴일도 잊고 편입토지 물건 조사, 준설토 농경지 리모델링 대상지 선정, 환경영향평가 협의, 문화재 협의 등의 작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에게 '최고의 명품 금강'을 선물하기 위해서죠.

금강 살리기 사업이 충청권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금강 개발로 충청권 공동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우선은 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3만4천명의 고용 창출과 3조3천4백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지역균형개발입니다. 충남지사에 취임해보니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충남 서북부권에 비해 개발이 늦어진 금강권역 개발을 위해 만든 것이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10년간 6천억원의 도비를 쏟아붓는 대규모 프로젝트인데 다른 지역의 공격을 많이 받았지만 일일이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 시행 중입니다. 이런 마당에 금강 살리기 사업은 무척 반가운 일이죠.

백제권 개발사업을 금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백제권 개발사업은 그동안 역사 속에 묻혀 있던 대백제국의 역사성을 재현하고 고증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부여군 규암면에 백제역사재현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롯데가 체류형 관광을 유도할 테마파크를 지을 계획입니다. 2010년에는 백제문화제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격상시킨 '대백제전'을 열 계획입니다. 백제권 개발사업의 하나로 실시할 예정이던 공주 곰나루 수변공원 설치와 청양~부여 공구의 호암지구 수변공원 설치사업을 금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대신 2010년 대백제전에 맞출 수 있도록 이들 공사가 우선 시공될 수 있게 관계 부처와 협의 중입니다. 정부가 금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해 2013년까지 백제권 개발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입니까.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최대한 빠른 시기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합니다. 또 이 사업을 지역발전 모델과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시너지효과가 나타나지요. 지역 기업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충남도는 설계 단계부터 금강 살리기 사업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를 도내 생산 제품으로 활용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건설업체의 입찰 참여 비율을 40퍼센트 이상으로 법제화하고 사업 착수 후에는 도내 중소 건설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나갈 계획입니다. G

글 · 지명훈(동아일보 사회부 기자)

강 따라 1박2일… 문화가 흐르는 금강

왕들이 잠들어 있는 땅 백제를 만나다



공주 공산성에서는 금강이 한눈에 굽어보인다.

공주→부여

공주대교 남쪽에 공산성(公山城)이 있다. 금강을 굽어보고 있는 공산성은 백제시대의 중요한 산성이었다. 성벽 안에는 7, 8미터의 호(壕)와 우물터, 광복루, 쌍수정, 연못터 등이 남아 있다. 공산성을 나와 공주철교를 잠시 걸어서 건너보자. 금강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공산성 맞은편에 무령왕릉이 있다. 백제 25대 왕인 무령왕과 왕비의 능으로, 2천9백여 점의 유물과 12점의 국보급 유물이 출토됐다. 실제 왕릉에는 들어갈 수 없지만 똑같이 생긴 모형 능을 살펴볼 수 있다. 공주 시내 전경이 시원스럽게 바라다보여 경치도 좋다.

웅진동에 국립공주박물관이 있다. 무령왕릉과 충남지역에서 출토된 백제문화재를 중심으로 국보 19점, 보물 3점 등 약 1만1천여 점의 문화재들을 보존 전시하고 있다.

금강은 부여로 흘러들면서 '백마강'이라는 새 이름을 얻는다. 유유히 흐르는 백마강에는 한때 번성했던 백제의 문화가 곳곳에 남아 있다. 부여 읍내는 마치 거대한 박물관 같다. 부여 읍내에는 백제시대 절터인 정림사지가 있고, 국보로 지정된 5층 석탑이 천년 풍파를 견디며 묵묵히 서 있다.

정림사지에서 북서쪽으로 올라가면 부소산성이 있다. 부여의 진산인 부소산에 쌓은 사비의 중심 산성으로 자연 지형을 그대로 살린 백제 고유의 축성양식을 보여주는 곳이다. 산책로가 잘 조성돼 있어 산림욕을 하기에도 적합하다. 부소산을 산책하다가 뒤쪽으로 가면 유명한 낙화암이 있다. 백제가 망하던 날, 백제의 여인들이 충절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백마강에 몸을 던졌다는 곳이다.

낙화암에서 돌계단을 내려가면 백마강 위에 천년고찰 고란사가 있다. 당초에는 백제의 왕들을 위한 정자였다고 하며, 백제가 멸망할 때 낙화암에서 스러져간 삼천궁녀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1028년(고려 현종 19년)에 지은 사찰이라고 한다.

자연지형 살린 부소산성 산책로서 산림욕 즐기고

부소산에서 낙화암과 고란사를 지나쳐 내려가면 백마강 유람선을 탈 수 있는 나루터에 이른다. 구드래나루터까지 10분 정도 운항하는 짧은 길이지만 강 한가운데서 부소산성과 낙화암을 감상할 수 있다. 황포돛배는 백마강의 고란사와 수복정 간 3.5킬로미터 구간에 걸쳐 왕복 운항한다.

부소산성 남쪽에 백제시대 인공연못인 궁남지(宮南池)가 있다. 경주 안압지보다 40년이나 앞서 조성된 궁남지는 백제의 토목기술을 잘 말해주는 곳이다. 연못 한가운데 '포룡정'이라는 정자가 그림처럼 떠 있다. 이곳에서 무왕은 왕비였던 선화공주와 함께 뱃놀이를 즐겼다고 한다.

궁남지에서 가까운 금성로 거리에 국립부여박물관이 있어 화려한 백제문화를 엿볼 수 있다.

논산→서천→군산

강경은 1914년 철도가 개통되기 전부터 평양 시장, 대구 시장과 더불어 우리나라 3대 시장의 하나로 꼽힐 만큼 상업이 번창한 곳이었다. 조선시대에는 한양 마포나루에 젓갈을 대던 전국의 포구 중 강경이 가장 컸다.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젓갈의 60퍼센트 이상이 이곳을 거쳐 간다고 한다. 또 매년 김장철을 앞두고 '강경발효젓갈축제'가 열려 매년 1백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아온다.

강경에서 논산 읍내로 가면 관촉동에 관촉사가 있다. 보물 9호인 석등을 비롯해 5층 석탑과 배례석이 보존돼 있다. 관촉사와 멀지 않은 부적면에 가면 탑정호가 있다. 탑정호는 물이 맑고 깨끗해 잉어, 쏘가리, 메기 등 담수어족이 풍부하고, 논산8경 중 제2경으로 불리며 수려한 경관을 자랑한다.

한산 모시는 서천의 특산물이다. 모시풀이 처음 발견된 건지산 기슭에는 한산모시관이 있다. 모시각, 전통공방, 전수교육관, 토속관 등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직접 한산 모시를 체험할 수 있다.

여기서 5분 거리에 소곡주장을 비롯한 대목장, 부채장, 바디장 등 무형문화재 복합전수관이 있다. 백제가 멸망하자 유민들이 흰 소복을 입고 술을 빚었다고 하여 소곡주라 부른다. 찹쌀과 누룩, 메주콩과 생강, 약간의 국화잎 그리고 부정 타지 말라는 의미의 홍고추를 넣는다. 땅속 항아리에서 1백일 동안 숙성시키는데 약주로는 가장 오래 발효시키는 술이다. 이곳에서 시음을 할 수 있다(문의 080-012-2000).

한산면에서 20여 분 가면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신성리 갈대밭이 있다.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를 촬영했던 갈대밭이다. 면적이 19만8천 제곱미터에 달하는 갈대밭 사이로 산책로가 잘 뚫려 있다.

신성리 갈대밭에서 한산면을 거쳐 서쪽으로 달리면 금강 하구둑이 나온다. 금강 연안의 홍수 조절과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1990년 완공한 둑으로 충남 서천과 전북 군산을 잇는 교량 역할을 하고 있다. 상류에는 갈대숲이, 뒤편으로는 낮은 구릉지가 펼쳐져 있어 수려한 경관을 자랑한다.

군산 비양도 풍력발전소 사진 찍기 안성맞춤

금강 하구둑은 매년 겨울이면 각양각색의 철새들이 찾아드는 철새도래지이자 2백 리에 이르는 아름다운 서천 해안이 시작되는 곳이다. 여기에는 철새를 관찰할 수 있는 탐조대가 있다. 11층 높이 건물로 상설전시관, 동물표본실, 수족관 등이 있다. 11층 조망대에서 망원경으로 철새들을 관찰할 수 있다.

군산시 신흥동에는 히로쓰 가옥이 있다. 일제강점기 군산의 유명한 포목상이었던 일본인 히로쓰가 건축한 전통 일본식 2층 목조가옥이다. 일제강점기 군산지역 가옥 밀집지인 신흥동 지역 일식 주택의 특성이 잘 보존돼 있는 건물이다. 영화 〈장군의 아들〉과 〈타짜〉의 촬영 장소이기도 하다.

금강 하구의 전주~군산 자동차전용도로가 끝나는 지점에 풍력발전단지가 있다. 높이 45미터, 날개 직경 48미터인 풍력발전기 10기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사진 찍기 좋은 곳이다. G

글과 사진 · 박상대(여행스케치 대표)





군산시 신흥동에 있는 일제강점기 건물인 히로쓰 가옥(왼쪽). 군산 비양도 풍력발전소는 사진 찍기에 좋은 곳이다.

공주관광안내소 041-856-7700, 1330, **부여군청 문화관광과** 041-830-2252~5, **논산시청 문화관광과** 041-730-3208
서천군청 문화관광과 041-950-4256, **군산시 관광진흥과** 063-450-6110



민물고기 중 경제성이 높은 은어는 영산강 대표 캐릭터입니다. 4~6월에 바다에서 강으로 올라와 8, 9월에 산란하면 암수 모두 죽는 게 특징입니다. 섬진강, 영산강 등에 많이 회유하고 있었으나 영산강은 오염 등의 이유로 회귀 개체수가 매우 적은 상태입니다. 가슴 로고는 영산강의 'ㅇ'이며, 깨끗한 물과 녹색성장을 상징하는 하늘색을 사용했습니다.

영산강

죽음의 강… 남도의 젖줄로 부활하다

생태계 파괴, 수질오염 등으로 얼룩졌던 영산강이 다시 살아난다.
정부와 지자체는 수질 개선과 생태 복원을 통해 2012년까지 3백50리의 물줄기를 깨끗하게 만들 예정이다.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봄이면 강바닥이 드러나고, 오염된 물은 사용하기 두렵습니다. 반대로 여름이면 강물이 넘쳐 한바탕 물난리가 납니다. 홍수와 가뭄을 반복적으로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거는 기대가 클 겁니다."

영산강 유역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한 주민의 이야기다. 이처럼 강이 제구실을 못하면 지역 주민들의 생존이 위태로워진다. 매년 봄과 여름이면 가뭄이나 홍수로 고생하고, 오염된 강물에선 더 이상 물고기를 잡을 수 없어 생계를 잇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때 '남도의 젖줄'이던 영산강은 지금 '죽음의 강'으로 불린다. 하천으로서의 기능이 둔화돼 자연재해를 막지 못하고, 수질도 4급수로 떨어져 수생태계가 파괴됐다. 이렇게 영산강이 황폐해진 데는 1981년 건설된 하굿둑도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바닷물 범람을 막고 여름 수해가 심각한 함평천을 살리기 위해 1972년 '영산강유역종합개발사업'이 시작됐다. 그런데 하굿둑이 들어서자 강 하류 물길이 막히면서 강 흐름이 느려졌다. 상류로부터 흘러들어온 공장 폐수, 각종 퇴적물, 쓰레기 등이 쌓이면서 수질오염이 심해졌고, 생태계가 파괴되기 시작했다. 또한 담양호, 장성호 등 4개 댐이 농업용수로만 사용돼 가물면 하천이 말라붙기 일쑤였다. 따라서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수질 개선과 홍수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다.


동아DB

영산강이 다시 살아나면 지역민들의 보금자리로 거듭나게 된다.

봄 가뭄·여름 홍수에 지친 주민도 대환영

지난 6월 발표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서 확정된 영산강 살리기 사업 예산 규모는 총 2조6천4백61억원으로 당초 계획된 1조5천5백30억원보다 1조원 이상 늘어났다. 4대강별 유역 면적이나 하천 길이로 봤을 때 예산 반영 규모가 큰 편이다.

예산은 물 확보, 수질 개선, 생태 복원 등 영산강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집중돼 있다. 먼저 나주에 죽산보와 승촌보 등 2개의 보를 설치해 4천만 세제곱미터의 용수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보를 설치하면 수량이 풍부해져 오염물질을 희석시키고, 보에 저장된 수량은 하천유지용수 등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영산강 하굿둑부터 담양댐까지 하도를 준설한다. 또한 농업용 저수지, 강변 저류지, 홍수 조절지 등을 신설해 1억2천만 세제곱미터의 홍수조절 용량도 확보할 계획이다. 섬진강 20킬로미터를 포함해 오래되고 낡은 둑을 보강하고, 영산강 하구둑도 증설하면 홍수 발생 시 영산호 내수위가 약 30센티미터 낮아져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영산강은 4대강 중에서도 수질오염이 심각한 강이다. 따라서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해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고 비점오염원을 중점 관리하는 사업도 펼친다. 정부는 광주천을 최우선관

동아DB



수질오염이 심각한 영산강의 환경기초시설을 대폭 확충해 맑은 물로 되살릴 계획이다.

리지역으로, 영산강 중류와 하류를 핵심관리지역으로, 영산강 하구언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해 현재 4~6급수인 강물을 2012년까지 2급수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요 4개 지역에 하수처리장, 마을 하수도, 가축분뇨 처리시설, 빗물침수 저류시설, 생태 유수지 등의 시설을 대폭 확충해 수질 개선에 힘쓸 예정이다.

영산강은 4대강 중에서도 수질오염이 심각한 강이다. 따라서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해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고 비점오염원을 중점 관리하는 사업을 펼친다. 현재 4~6급수인 강물을 2012년까지 2급수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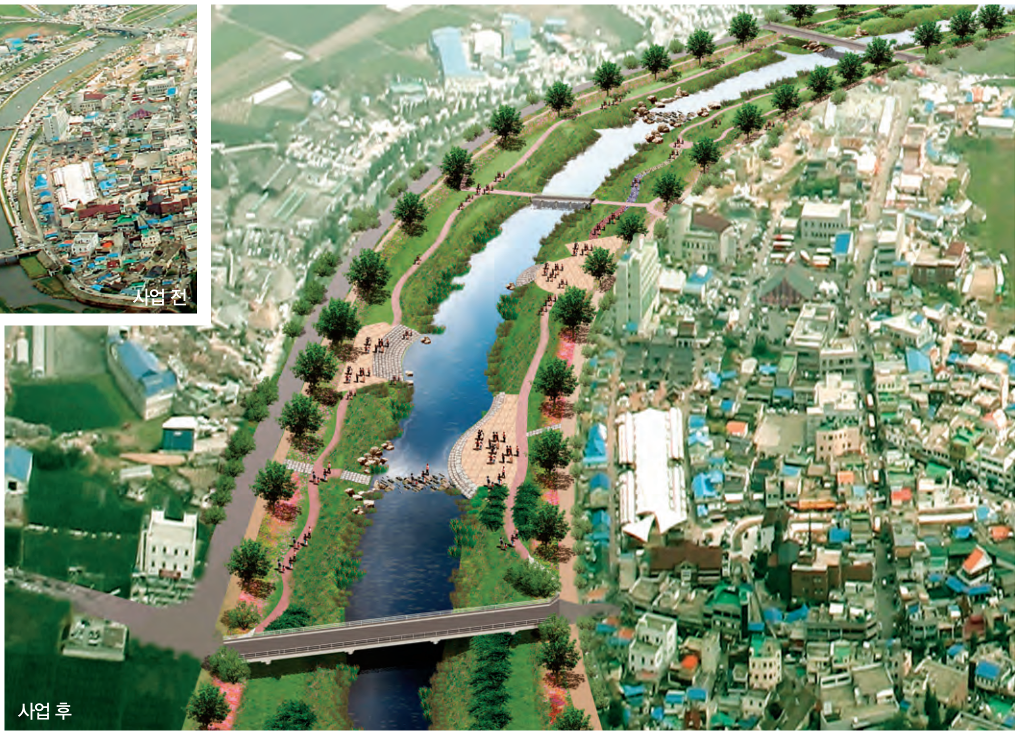
영산강 생태복원사업은 하천의 환경생태 기능을 회복하고 자연정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천 내 농경지 정리, 구하도 복원, 생태습지 조성 등과 함께 섬진강을 포함한 총 1백30킬로미터의 생태하천 조성이 이뤄진다.

이 밖에도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천변에 상·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길을 만들고 휴게시설도 설치한다. 또한 수변공간에는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을 배치하고 목포에서 광주를 잇는 뱃길도 복원한다.

영산강 살리기 본사업과 별도로 섬진강 등 주요 지류 하천을 정비하고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는 직접연계사업도 추진한다. 섬진강 쪽은 농업용 저수지를 비롯해 노후제방을 보강하고 생태습지와 생태하천을 조성한다. 또 강 하구에서 섬진강댐까지 자전거도로를 설치한다. 하동군청 환경수산과 이재만 씨는 "섬진강 맑은 물 생태탐험 전망대, 섬진강 경관 조명 설치 등 문화·관광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강의 본래 모습을 되찾아줄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보고서는 전라권(광주, 전남, 전북, 제주)에서만 영산강 살리기 사업 등을 통해 6조7백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5만4천4백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기능직 및 기계 장비공, 관리 및 사무직 등





영산강 살리기 사업 조감도. 영산강 살리기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분야에 일자리가 생겨나는 셈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윤영선 연구위원은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전라권에서만 건설업 3만6천3백명, 제조업 3천6백명, 서비스업 7천2백명 등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공사비가 많은 지역과 건설업 연관성이 높은 산업이 발달한 지역일수록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4대강 살리기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업체 의무참여 비율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지역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천사업 공사발주 입찰 조건에서 지역 업체의 참여 비율을 높였다. 조달청 시설총괄과 오건수 사무관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 29일자로 개정한 국가계약 관련 회계예규 및 고시 내용을 이번 4대강 사업 턴키 입찰공고부터 적용했다"고 말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한해 공사 규모에 상관없이 지역 업체 의무참여 비율을 일반 공사 40퍼센트 이상, 턴키 공사 20퍼센트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는 국가기관 발주공사의 경우 76억원 이상이면 지역 업체 의무참여 비율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던 종전 규정에서 벗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는 획기적인 조처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문화·관광자원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 문화·관광자원은 그동안 주민으로부터 멀어졌던 강을 다시 주민들 품으로 되돌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는 새로운 인프라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4대강에 건설되는 보들이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 역사나 전설 등 이야기가 담긴 디자인으로 설계해 이를 관광·레저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영산강의 경우 나주 승촌보를 '생명의 땅'인 나주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생명의 문'으로 형상화할 예정이다.

이미 황포돛배 관광선 등으로 영산강 문화체험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나주시는 고대 목선인 나주선을 복원할 계획이다. 나주시청 문화관광과 윤지향 씨는 "10세기를 전후로 영산강과 나주를 오갔던 고대 목선을 사업비 8억원을 들여 내년 말까지 복원해 영산강의 대표적 상징물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물 부족과 홍수 피해를 해결하고 수질 개선과 하천 복원으로 생태계가 회복돼 영산강이 '생명이 깨어나는 강'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 또한 강을 다시 주민들 품으로 되돌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는 새로운 인프라가 될 전망이다.

나주선은 지난 2004년과 올 3월 영산강에서 발굴된 목선을 토대로 복원해 관광 유람선 형태로 운항된다. 이 배는 길이 29.9미터, 너비 9.9미터, 깊이 3.16미터의 92톤급으로 60명의 관광객이 승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 또한 접이식 돛을 설치해 교량 통과에도 대비할 예정이다. 현재 황포돛배가 오가는 나주 공산면 다야뜰 주변을 운항하다가 장기적으로는 나주 영산

영산강 살리기 이렇게 한다!



영산강 살리기 주요 핵심사업

보	2개
농업용 저수지	23개
준설	3000만m^3
노후제방 보강	17km
강변저류지	1개
홍수조절지	2개
생태하천	130km
자전거도로	220km
목포~광주 뱃길 복원	80km

지도 일러스트 · 이우정

포에서 죽산교까지 10여 킬로미터 구간을 운항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국비와 도비 총 4억원을 들여 영산강 하굿둑에서 무영대교까지 20킬로미터를 운항할 영산강 황포돛배를 만든다. 전남도청 관광정책과 심남식 씨는 “영산강 황포돛배는 내년 4월 취항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영산강변 지역을 체험할 수 있는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만들어 대외적으로 영산강을 홍보하고, 주민 생활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후 동신대 관광학과 교수는 영산강변 관광사업 활성화와 뱃길 복원사업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영산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 박물관, 테마파크 등 영산강의 문화·관광자원을 만들어 지역의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물 부족과 홍수 피해를 해결하고 수질 개선과 하천 복원으로 생태계가 회복돼 영산강이 ‘생명이 깨어나는 강’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지역경제를 살리는 ‘호남의 젖줄’이 될 전망이다. G

글 · 김민지 기자

오염물 부유에 기형 어류 속출… 영산강 뱃길 탐사체험

"이제야 영산강을 제대로 살릴 것 같다"

한때 수려한 자연환경을 뽐내던 영산강은 시간이 흐르면서 지역 내 골칫거리가 됐다.
상류에서 흘러들어온 공장 폐수를 비롯해 각종 퇴적물과 쓰레기들로 강 생태계가 파괴됐기 때문이다.
지난 7월 2일 영산강 뱃길 탐사체험을 통해 영산강의 안타까운 모습을 둘러봤다.

전남도청 제공





영산강 하류에는 극심한 오염으로 인해 뱃길 탐사 선박 외에는 다른 배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검푸른 녹조로 뿌옇게 변한 영산강 아래로 부목과 폐그물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바람이 불자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나불도 선착장에는 뱃길 탐사에 나선 선박 2척과 119 구조선 등 총 3척만이 한가로이 정박해 있을 뿐이었다. 예전 같으면 나주 영산포에서 목포까지 홍어를 실은 배들이 분주히 오갔을 텐데 이제 만선의 꿈을 실은 배들은 찾아볼 수 없다.

지난 7월 2일 오전 10시 30분 전남도청 주관으로 영산강 뱃길 탐사가 진행됐다.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본격적인 착공에 앞서 영산강 생태환경을 제대로 짚어보기 위해서였다. 20톤급 탐사선 '한남호' '뉴갈매기호' 두 척이 환경단체 관계자와 지역개발 전문위원 등 80여 명을 태우고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포구에서 영산강 상류로 천천히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다.

강 하류에서는 폭 2킬로미터에 최고 수심이 14미터에 달하는 영산호가 시원스럽게 펼쳐졌다. 그러나 4급수로 전락한 영산호는 녹조현상이 시작돼 보기 흉했고, 녹조 위에 하늘색 오염원 띠가 한 층 더 생겨나 근처만 지나도 역겨운 냄새가 진동했다.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수질을 측정한 결과 영산호의 전기전도(EC)는 7백80으로 주암호와 장흥호의 70~80에 비해 10배가량 높았다. 전기전도는 물 속에 불순성분이 많을수록 수치가 높아진다. 불순물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물고기가 살기 어려운 환경이란 뜻이다.

출발한 지 1시간 남짓 지나자 멍수바위 등대가 눈에 들어왔다. 20여 년 전만 해도 청둥오리 등 수많은 철새들이 떼 지어 다녔던 곳이지만 먹잇감이 크게 줄어든 이후 철새들을 보기 힘들어졌다.

1시간쯤 더 달려 무안 몽탄대교 인근에 도착했다. 이곳에서는 전남도의 환경 정화선인 '영산강호'가 배에 설치된 기중기를 사용해 부목, 폐그물 등을 끌어올리고 있었다. 몽탄대교 인근 수질은 영산호보다는 나았지만 용존산소량(DO) 2.4로 여전히 물고기가 살기 어려운 상태였다. 이해운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사는 "상층수의 용존산소량이 2 이하면 물고기가 거의 살기 어려운 상태"라며 "특히 강바닥 저층수는 수질이 더욱 나쁘다"고 말했다.

이처럼 수질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영산호에는 20년째 양식장이 운영되고 있다. 붕어와 잉어 등을 잡는 내수면 어선도 1백70여 척에 이르는 등 여전히 어민들의 생계 터전인 셈이다. 강 상류로 거슬러 갈수록 고깃배들은 많아졌다. 함평군 사포나루에는 20여 척의 어선이 정박해 있었다. 하지만 강의 오염이 심해지면서 기형 어류가 출현하고,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면서 어

“나불도 선착장 인근에만 예전에 30가구가 넘게 살았지만 지금은 거의 다 떠나버렸다. 풍요로웠던 영산강이 죽음의 강으로 변하면서 주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루빨리 수질 및 치수 개선을 통해 영산강을 살리고 예전처럼 배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다.”



동아DB

영산강 살리기는 수질오염을 막고 자연환경을 되살리는 친환경 사업이다.

업으로만 생계를 이어가기 힘든 게 현실이다.

전남 영암군 나불리에 사는 한남호 선장 전도영(56) 씨는 “나불도 선착장 인근에만 예전에 30가구가 넘게 살았지만 지금은 거의 다 떠나버렸다”며 “풍요로웠던 영산강이 죽음의 강으로 변하면서 주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하루빨리 수질 및 치수 개선을 통해 영산강을 살리고 예전처럼 배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폐그물 걸려 탐사 포기… 수질 개선 위해 준설작업 불가피

상류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강폭이 좁아지며 수심이 급격히 얕아졌다. 탐사선은 수심이 깊은 곳을 찾아 조심스럽게 갈지자로 움직이며 강물을 거슬러 올라갔다. 그러다 사포나루 인근에서 한남호가 갑자기 멈춰섰다. 강물 속을 떠다니던 폐그물이 스크루에 걸린 것이다. 더 이상 운행이 불가능했다. 나주 석관정까지 거슬러 올라가려던 영산강 탐사는 결국 사포나루에서 끝났다.

홍석태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은 “폭 2백 미터가 넘는 강이 이 정도로 수심이 얕아진 것은 수십 년 동안 강 밑바닥에 쌓인 퇴적물 때문”이라며 “유량을 확보하고 수질을 개선하려면 준설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를 타고 둘러본 모습은 오염된 영산강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여전한 둔치의 불법 경작, 영산호 일대에 쳐진 불법 삼각망과 가두리 양식장 등은 수질 개선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었다.

영산강 수계는 유역 내 토지 구성 중 농경지가 33.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다. 4대 강 중 농경지 비율이 가장 높다. 영산강 둔치 경작지에서 비료나 농약이 여과 없이 빗물 등에 쓸려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경작지 중 70퍼센트는 불법 경작지로 조사됐다. 영산강 유역 경작으로 생긴 오염원이 수십 년 동안 영산강으로 흘러들어가 생태환경을 파괴했던 것이다. 영산강 인근 주민들은 “이제야 영산강을 제대로 살릴 수 있을지 기대가 된다”면서 “살기 좋고 물 좋은 영산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날 탐사에서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정부의 강 살리기 사업은 소규모 댐을 만들고 강바닥을 파내는 대규모 토목공사처럼 보인다”며 “생태계를 보전하고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금이라도 시간을 두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면서 천천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G

글 · 최원일(광주일보 사회2부 기자)

박준영 전남도지사

녹색의 땅, 녹색의 江… 남도를 살린다

목포와 광주를 잇는 영산강은 예부터 풍류와 멋이 살아 숨 쉬는 곳이었다.
하지만 산업화 이후 공장 폐수와 쓰레기로 생태계가 파괴돼 죽은 강이 됐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로부터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새롭게 거듭날 영산강의 미래에 대해 들었다.

박준영(62) 전남도지사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영산강 살리기에 관심을 가져왔다. 영산강이 심각한 수량 부족으로 급속히 부영양화 · 녹조화해 강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박지사는 "농업용수로도 사용하기 어려울 만큼 나빠진 영산강 수질을 2급수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유람선을 띄워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고 자신했다. 21세기 영산강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4대강 살리기 이전부터 박 지사는 영산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산강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은 현 정부 출범 이전인 2004년부터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호남의 젖줄이라는 영산강을 관광, 용수, 생태환경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해야 하는데 오염이 심해 도민들에게 외면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정부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영산강 본류사업은 2011년까지 약 2조7천억원을 투자해 수자원 확보, 홍수 방어, 수질 개선 등을 위한 사업이 추진됩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부족한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 2개 보 설치, 14개소의 농업용 저수지 증고와 홍수 방어를 위한 하도 정비, 하구둑 배수문 증설, 그리고 수질 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생태하천 조성 등입니다. 이 같은 본류사업 외에도 섬진강과 황룡강, 함평천 등의 정비와 수질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 관광 등 강 살리기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연계사업은 2010년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해 연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전남도가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영산강 살리기 계획이 있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협조체계를 긴밀히 유지해나가면서 영산강 자전거도로 개설, 구간별 하천 정비 등 세부사업에 전남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도 자체적으로 영산강 수질 개선을 위한 샛강 살리기와 랜드마크 조성 등도 모색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



전남도청 제공

지난해 5월부터 운항을 시작한 황포돛배는 영산강 관광체험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밖에도 영산강 하구둑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하구둑의 배수문을 2백40미터에서 4백80미터로 증설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영산강 살리기 사업으로 전남 주민들이 받게 될 구체적인 혜택은 무엇인가요.

사업 시행에 있어서 턴키 공사는 20퍼센트 이상, 일반 공사는 40퍼센트 이상 지역 업체가 참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끼칠 것입니다. 또한 영산강 유역의 역사·문화자원 복원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마스터플랜을 수립, 연차별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나루터 복원, 고대문화권 특정지역 개발 등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마련해나갈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새로운 문화·관광자원을 개발, 지역민들의 문화수준을 높이고 관광수익을 증대시킬 계획입니다.

섬진강을 비롯한 샛강 프로젝트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섬진강의 경우는 2011년까지 약 3천억원을 투자해 생태하천 조성과 자전거도로 그리고 하도 정비 및 농업용 저수지 증고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한 영산강 본류 정비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본류와 연결된 2백38개소 7백13킬로미터의 샛강 구간에 대해서도 정부의 지방하천 정비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일부 환경단체가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사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영산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일부 환경단체가 환경훼손을 우려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환경단체의 주장이 타당하기는 하나 영산강 오염에 대한 걱정은 더 이상 안 해도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녹색의 땅' 이라는 도정 슬로건에 맞게 친환경적인 개발 방식으로 영산강을 살려나가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워낙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 지역 간, 주민 간의 갈등은 일정 부분 존재하리라 봅니다. 가장 우려하는 것은 영산강 유역권이 아닌 다른 지역의 무관심입니다. 깨끗한 영산강을 만들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현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의 책무이며,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전남 모든 지역에 해당된다는 점을 이해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이미 확정됐으며 반드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영산강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해 강에서 수영도 하고, 배도 다니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가꿔야 합니다. 이제는 '왜 하느냐' 단계에서 벗어나 영산강이 전남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가'에 더 깊은 관심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G

글 · 박원우(전남매일 사회부 기자)

> 영산강 유역의 역사·문화자원 복원을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도 나루터 복원, 고대문화권 특정지역 개발 등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마련해나갈 방침입니다.
> 이를 통해 지역 내 새로운 문화·관광자원을 개발, 지역민들의 문화수준을 높이고 관광수익을 증대시킬 계획입니다.


전남도청 제공

강 따라 1박2일… 문화가 흐르는 영산강

은빛 물결 넉넉한 남도 인심 정다워라

나주→무안→함평

광주에서 나주 방면으로 가다 보면 나주시 남평면이 나온다. 남평면을 가로질러 흐르는 작은 강이 영산강 지류인 드들강(지석천)이다. 수량이 많아 사계절 마르지 않는 데다 화순까지 이어지는 강변길이 아름답다.

남평면에서 화순으로 가는 길목에 나주호가 있다. 나주호를 끼고 이어지는 지방도는 젊은이들의 드라이브 코스로 각광받고 있다. 부근에 천년고찰 불회사가 있다. 불회사 어귀에는 돌장승이 늘어서 있고 아름다운 대웅전이 시선을 끈다.

나주시내 과원동에 있는 조선시대 나주목의 객사(客舍)였던 금성관, 나주가 '천년고도 목사고을'이었음을 알리기 위해 설립한 나주목문화관도 꼭 들러야 할 곳이다. 금성관 앞엔 곰탕거리가 조성돼 있는데, 뼈를 넣지 않고 사태와 양지를 푹 고아서 국물이 맑은 것이 특징이다. 영산포에는 홍어요리를 파는 홍어거리가 있다.

1977년 10월 마지막 배가 떠난 지 31년 만인 지난해 영산포에 다시 황포돛배가 떴다. 물건 대신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황포돛배지만 정취만큼은 빠지지 않는다. 영산포 선착장을 출발한 배는 나주영상테마파크와 석관정, 금강정을 지나 선회하는 왕복 6킬로미터 구간을 운항한다. 소요 시간은 30~35분 정도로 그리 길지 않다.

볼거리 맛거리 푸짐한 함평오일장 들러

함평과 무안은 영산강이 흐르는 청정지역이다. 함평은 10여 년 전부터 나비축제를 기획해 성공한 지방축제로 자리매김했다. 함평읍내에선 오일장이 열린다. 1백 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함평오일장엔 지역 특산물이 풍성하다. 돼지국밥이나 육회비빔밥 등 장터에서 먹을거리를 맛보는 것도 좋다. 매월 2일, 7일, 12일, 17일, 22일, 27일 열린다.

함평읍에서 영광 방면으로 20여 분 달리면 광암리 용천사가 있다. 늦여름이면 사찰 주변에 꽃무릇 군락이 장관을 이룬다. 용천사에서 멀지 않은 대동면 운교리엔 함평자연생태공원이 있다. 함평은 희귀 변이종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명품 난이 자생하고 있는 한국춘란의 최대 분포지역이다. 난공원을 시작

섬진강변 오른쪽에 있는 기차펜션이 이색적이다.









함평자연생태공원과 나주 영산강 황포돛배, 화개장터(시계 방향으로).

으로 생태공원을 조성해놓았다.

함평에서 무안 방면 국도나 지방도를 타고 가다 서쪽으로 방향을 틀면 우리나라 최대 갯벌지대를 만날 수 있다. 무안 갯벌에서 잡히는 낙지가 뻘낙지와 세발낙지다. 무안터미널 바로 앞에 있는 낙지골목에서 맛볼 수 있는데, 값도 싸고 물도 좋다.

무안의 대표 여행지로는 일로면에 있는 회산 백련지를 꼽을 수 있다. 백련지는 전체 면적 33만 제곱미터 규모의 동양 최대 연꽃 연못이다. 이 대형 연못에 우리나라에서 귀한 백련이 가득 채워져 있다. 백련축제(8월)를 하면서 홍련, 수련, 가시연 등 다양한 종류의 연꽃을 옮겨 심어놓았다. 가족 단위 산책 코스, 연인과의 데이트 코스로 손색이 없다.

화개장터→하동→광양

섬진강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화개장터다. 화개장터는 광복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5대 시장 중 하나였다. 아직도 도토리묵집, 재첩국집, 주막 등이 남아 있어 훈훈한 인심을 주고받는 만남과 화합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화개장터를 구경한 후에는 쌍계사로 향한다. 신라 때 대비와 삼법 두 화상이 세운 사찰이다. 일주문, 천왕문, 팔영루, 대웅전, 삼성각 등 건물들이 일직선상에 가깝게 배치돼 있으나 산비탈을 이용한 낮은 층단이 계속되고, 중간 중간에 다른 건물들이 비대칭적으로 들어서 있어 문을 하나씩 통과할 때마다 깊숙이 안으로 빨려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섬진강변을 휘감고 도는 지방도는 환상적인 드라이브 코스다. 섬진강의 은빛 물결에 눈이 부시다. 특히 봄이면 산 양쪽 기슭과 도로변이 온통 꽃으로 뒤덮여 매년 상춘객들을 유혹한다. 벚꽃이 바람에 날리면 황홀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산수유, 매화, 진달래가 꽃대궐을 이룬다.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엔 박경리의 대하소설 〈토지〉의 무대인 최참판댁이 있다. 조선 후기 우리 민족의 생활 모습을 담은 초가집, 유물 등을 갖춘 드라마 〈토지〉의 세트장도 조성돼 있다.

섬진강변 깔끔한 재첩국 아침식사로 좋아

섬진강물을 만져보고 싶은 사람은 하동읍 광평리에 있는 송림공원으로 가면 된다. 1745년 당시 도호부사 전천상이 강바람과 모래바람의 피해를 막을 목적으로 섬진강변에 소나무를 심었다. 2백60년 된 7백50여 그루의 노송이 넓은 백사장, 파란 섬진강 물결과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을 연상시킨다.

섬진강변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싶으면 재첩국을 맛보길 권한다. 재첩은 염분이 적고 깨끗한 물에서만 서식해 섬진강에서 많이 잡힌다. 해감을 한 뒤 푹 끓여 소금으로 간하고 부추를 잘게 썬 것이 전부지만 속을 풀어주는 데는 이만한 게 없다.

광양에는 산세가 좋고 계곡이 깊은 백운산이 있다. 백운산 정상에 오르지 않아도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끼고 흐르는 금천계곡(다압면 금천리), 어치계곡(진상면 수어저수지), 성불계곡(도솔봉 남쪽 봉강면), 옥룡면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동곡계곡(광양읍 동천) 등의 4대 계곡을 품고 있어 여행객들이 즐겨 찾는다. 광양에서 섬진강 상류로 올라가면 구례군 간전면과 곡성, 남원으로 이어진다. G

글과 사진 · 박상대(여행스케치 대표)

●● **나주시 문화관광과** 061-330-8107, **무안군 관광안내소** 061-4454-5224, **함평군 문화관광과** 061-320-3264, **함평오일장** 061-320-3352, **하동군 문화관광과** 055-880-2374, **광양시 관광진흥과** 061-797-2721

동아DB



명품 복합도시로 개발될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엔진으로서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명품 복합도시 새만금 아시아의 베니스를 꿈꾸다

새만금 명품 복합도시는 친환경적인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베니스나 암스테르담 등과 같이 산업은 물론 관광·레저, 국제업무 등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건설될 예정이다.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명품도시로 개발될 새만금은 사람과 자본, 기술을 끌어오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엔진으로서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국내외 투자를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매력적인 투자대상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휴먼, 녹색, 글로벌 도시라는 비전을 갖고 있는 새만금은 '명품'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인프라 구축을 위한 4가지 개발 목표를 갖고 있다.

도시개발 4대 목표 | 첫째, 새만금 명품 복합도시는 세계적 수변레저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레저와 예술, 휴양과 체험학습, 생태를 향유할 수 있도록 테마별로 특화된 품격 있는 콘텐츠를 갖춰 품격과 풍요, 조화를 간직한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둘째로는 해외직접투자(FDI) 유치산업과 비즈니스의 복합공간을 조성해 국제 물류의 거점으로 자리 잡은 글로벌 국제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외국인에게도 매력적인 정주 환경을 제공

하는 것은 물론, 한국적 전통과 미래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셋째는 녹색성장 시범도시로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자원순환형 모범도시로 건설해 인간과 생태계가 조화를 이루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를 주축으로 한 새로운 도시를 선보임으로써 저탄소 녹색개발의 모델로서 녹색생태도시를 실현할 예정이다.

넷째로는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통해 자족적인 완성도를 확보하고, U-city 등 디지털과 접목된 첨단도시로 건설해 산업과 레저, 주거와 상업이 조화를 이루는 인간 중심의 도시 건축을 선보인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친환경적 복합도시 | 새만금 국제신항만 내측의 산업용지와 국제업무용지, 그리고 변산반도 북쪽의 관광 · 레저용지에 들어설 새만금 명품 복합도시는 이탈리아 베니스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등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도시들과 어깨를 견줄 만한 명품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과 관광 · 레저, 국제업무, 환경, 문화 기능이 복합적으로 융합된 친환경 도시로 건설될 예정이다.

새만금 명품 복합도시는 새만금 전체 면적의 23.8퍼센트, 6천7백30헥타르에 조성된다. 세부적으로는 FDI 산업용지 2천30헥타르와 관광 · 레저용지 2천4백90헥타르, 국제업무용지 5백 헥타르, 생태환경용지 1천7백10헥타르로 구성돼 있다.

올해 12월까지 최종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2015년까지 1단계 사업이 시행에 들어가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단계, 2021년 이후 3단계로 개발될 예정이다.

새만금의 산업 입지조건 | 새만금은 대도시에서 비교적 거리가 먼 지역에 위치한 데다 바다에 면해 있고 국제항만을 보유해 가공조립형, 또는 금속 소재산업에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고 있다. 또한 중국과 인접해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기술력이나 숙련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업종이 유망하다.

이 같은 입지조건을 십분 활용하기 위해 정부는 태양광과 관련한 실리콘 소재산업과 그린 카와 관련한 자동차 및 부품산업, 일반기계 및 관련 부품산업과 식품산업 등을 주요 전략적 유치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중 · 단기적으로는 중국시장을 겨냥한 식품산업 클러스터를 우선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G

글 · 구자홍(동아일보 출판국 기자)

“세계 경제 중심지로 도약” 새만금에 주목!

동아DB



새만금의 꿈은 1970년대 초 바다를 육지로 만들어 식량 자급자족의 기지가 되겠다는 구상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정작 그 꿈이 현실에 발을 내디딘 것은 방조제 축조 공사의 첫 삽을 뜬 1991년부터였다.

올해 말이면 33킬로미터에 달하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방조제 내부 매립과 개발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18년 만에 새만금의 꿈이 현실로 이뤄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동안 환경문제로 공사가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도 적지 않았다. 그런 아픔 속에서도 새만금의 꿈은 꺾이지 않고 끈질기게 지속돼왔다.

새만금은 이제 오래되고 낡은 허물을 벗고 비상을 위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동북아지역이 21세기 세계경제의 중심지로 부상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을 연결하는 환황해권의 중심에 위치한 새만금의 지정학적 가치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 대통령후보 시절에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개발하겠다는 선거공약을 발표했고, 지난해 10월에는 정부가 기존 농지 위주에서 산업, 관광 등 복합용도로 개발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한 새만금 토지이용구상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7월 23일 발표한 정부의 ‘종합실천계획(안)’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실천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새만금사업 추진 경과

1989. 11	새만금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발표
1991. 11. 28	방조제 사업 착공
2001. 8. 21	매립 면허 취소 소송
2006. 3. 16	대법원 판결(정부 승소)
2006. 4. 21	방조제 최종 연결공사 완료
2007. 4. 3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수립 (농지 72퍼센트, 산업 · 관광용지 등 28퍼센트)
2007. 12. 27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2008.12.28 특별법 발효)
2008. 2. 12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동북아 경제중심지 개발계획 발표
2008. 4. 25	새만금 일부 지역 경제자유구역 지정 (산업 · 관광지구 2천8백60헥타르)
2008. 10. 21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변경안 보고(국무회의)
2008. 12. 3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 발족
2009. 1. 14	새만금위원회 발족
2009. 4. 30	새만금사업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의결
2009. 7. 23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 발표

TIPS 새만금 명칭의 유래

새만금은 만경평야와 김제평야가 새로 생긴다는 뜻에서 유래됐다. 새롭다의 ‘새’ 자와 만경평야의 ‘萬’(만)자, 김제평야의 ‘金’(금)자를 따서 ‘새만금’으로 불린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인터뷰

"새만금의 매력 세계에 알리겠다"

새만금을 명품 복합도시로 만들기 위한 '새만금종합실천계획' 방향이 확정됐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7월 23일 방송된 한국정책방송 KTV '정보와이드 6'에 출연해 명품도시 새만금의 비전을 밝혔다.

새만금종합실천계획 수립 방향이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새만금의 토지 이용을 농지 위주 개발계획에서 산업, 관광 등 복합용도 위주의 개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계획(안)은 이를 구체화하고 실행하기 위한 큰 틀의 기본구상 및 계획을 확정한 것입니다.

이번 종합실천계획안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부각시키기 위한 명품 복합도시 개발 방안을 마련하고, 명품 복합도시에 걸맞은 깨끗한 물 확보를 위한 환경대책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새만금 사업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5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을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새만금의 비전과 전략목표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종합실천계획안에서는 새만금의 비전을 '동북아 경제중심지, 미래·기회·약속의 터 새만금'으로 정했습니다. 비전을 실현할 전략목표를 글로벌 신경제 중심거점, 복합문화관광의 메카,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 청정생태의 보고로 정하고 무결점 사업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세계적 명품 새만금 건설을 지향할 계획입니다.

새만금을 세계적인 명품 복합도시로 건설하겠다는 게 눈에 띄는데, 그 배경과 앞으로의 개발전략이 궁금합니다.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제적 이목을 집중시키고 새만금의 상품성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명품 복합도시 건설계획은 새만금 중심지역을 베니스, 암스테르담처럼 인지도가 높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명품도시로 건설함으로써 새만금의 성장엔진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분당 면적의 3.4배 규모인 6천7백30만 제곱미터(새만금 전체의 23.8퍼센트)를 세계적인 수변레저도시, 글로벌 국제도시, 녹색성장 시범도시, 인간중심 도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청정 새만금을 위해 수질 목표를 농업용수 위주에서 적극적인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던데요.

'물의 도시' 새만금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깨끗한 물 확보가 절실해 수질 목표를 농업용수 수준에서 적극적인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강화했습니다. 수질 향상을 위해 인공습지 조성, 하수처리장 시설 확대, 축산단지 등 오염원 제거, 만경·동진강 하천정비사업 등 적극적인 수질 개선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기에 개발을 가시화하기 위해 5대 선도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우선 명품 복합도시 및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산업용지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방조제와 고군산도 관광개발 활성화를 위해 방조제 및 다기능부지 관광명소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한 저렴하고 안정적인 매립토 확보계획을 마련하며, 올해 중에 농업용지 구간에 대한 방수제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만경·동진강 권역 1백37킬로미터 구간에 대한 하천종합정비계획을 세워 2011년부터 착수할 계획입니다.

- √ 복합도시 및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산업용지 개발.
- √ 방조제와 고군산도 관광개발 활성화를 위해 방조제 및 다기능부지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
- √ 저렴하고 안정적인 매립토 확보계획을 마련하며, 올해 중에 농업용지 구간에 대한 방수제 공사 발주.
- √ 만경 · 동진강 권역 137km 구간에 대한 하천종합정비계획을 세워 2011년부터 착수.

그동안 방수시설물을 방수제 방식으로 일괄 축조할 경우, 미래 토지 이용이나 친수공간 확보 등을 제약할 수 있다는 문제들이 제기돼왔습니다.

총리실에서는 합리적 방수시설물 축조방안 마련을 위해 자문단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방수제 축조문제는 농업용지처럼 저매립을 해도 괜찮은 부지에는 방수제를 축조하고, 산업·관광용지 같은 사람과 시설 및 건물 밀집지역은 매립방식으로 추진키로 했습니다. 육지에 인접한 만경·동진강 유역의 농업용지 구간은 올해 중으로 방수제 축조공사에 착수하고, 산업·관광용지 등은 2011년부터 매립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저렴한 매립토를 확보해 조달하는 일이 중요한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선 군산항 준설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용지 매립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외해역 및 군산항 등 주변지역 매립토 부존량 조사를 올해 말까지 시행해 좀 더 근본적인 매립토 조달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새만금이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제 물류기능을 담당할 신항만과 군산공항의 확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새만금의 신항만 건설과 관련해서는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예비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군산공항 확장은 향후 새만금 사업의 개발 속도와 항공 수요 등을 감안해 추진 시기 등을 정하려 합니다. 정부는 적극적인 수요 창출형 개발을 통해 항만, 공항 등 주요 인프라가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새만금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는 일인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새만금 인지도 확산을 위해 글로벌 비전을 함축하면서 외국인이 부르기 쉬운 새만금 브랜드네임과 CI 제작을 추진 중입니다. 투자 유치를 위해 국내외 저명인사로 구성된 '새만금 명예자문관'을 위촉하고 실무 차원의 '새만금 투자자문단'을 운영해 새만금 투자환경 및 각종 인센티브제도(세제지원 등) 개선 보완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합실천계획은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확정됩니까.

8월부터 11월까지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공청회 및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또한 종합실천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하고, 부처 간 업무조정 사항 및 세부검토 결과 등을 반영해 12월 중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것입니다. G

정리 · 최호열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내년 조기 착공 세계적 수변 레저도시로 육성

정부가 7월 23일 발표한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에서는 기존의 새만금 이용 구상이 대폭 수정됐다. 당초 농지 비율을 72퍼센트로 책정했던 것을 30퍼센트로 축소하고, 대신 산업과 관광 등 비농지를 70퍼센트로 확대해 복합용도 위주로 전환했다.


동아DB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을 적극 도입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 도입 | 정부가 7월 23일 발표한 종합실천계획은 새만금의 개발 방향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해 사업 추진의 당위성과 지침을 제공하는 상위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기본구상과 비교할 때 종합실천계획은 새만금의 명품으로서의 가치를 부각시킬 매력적인 콘텐츠를 포함시켰다는 점이 특징이다.

종합실천계획에는 새만금의 대표상품으로 '명품 복합도시' 개발 구상과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준의 '깨끗한 물' 확보 방안이 담겼다. 이를 위해 기본구상 변경을 더욱 구체화해 8대 용지별로 개발테마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을 적극 도입키로 했다.

특히 조기개발을 가시화할 수 있는 '5대 선도사업'을 제시하는 한편 미래지향적이고 유연한 개발전략을 보여줌으로써 현실성 있는 개발전략을 채택했다. 또한 방수시설물 축조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우선 착공 가능한 구간부터 최대한 조기에 착수토록 했다.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개발 | 새만금의 비전은 '30~50년 후 미래한국을 이끌어갈 성장동력이자 국제적인 자랑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미래 새만금의 모습과 발전 방향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미래, 기회, 약속의 터'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개발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 같은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글로벌 신경제 중심 거점 △복합문화관광의 메카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범지역 △청정생태의 보고 △무결점 사업관리체계 구축 △세계적 명품 새만금 건설 등 6대 전략목표를 제시했다.

친환경적 명품 복합도시 건설 |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에는 지난해 10월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변경안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국내외 투자유치를 감안해 명품성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8가지 용도로 지정해 개발한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8가지 세부 용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 △관광·레저 △국제업무 △생태·환경 △과학·연구 △신재생에너지 △농업 △도시용지 등이다.

특히 새만금을 대표할 상품성을 지닌 명품 복합도시 건설 방안을 마련한 점이 눈에 띈다. 새만금에 들어설 명품 복합도시는 이탈리아 베니스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등과 같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산업과 관광·레저, 국제업무와 환경, 문화 기능이 복합적으로 융합돼 풍요와 품격을 갖춘 친환경적 복합도시로 건설될 예정이다.

사람과 자본, 기술을 끌어오는 '명품 복합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투자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창의적 디자인과 개발테마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세계적 수변 레저도시' '녹색성장 시범도시'로 육성할 방침이다.

특히 명품도시는 사람과 자본, 기술을 끌어오는 새만금의 대표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투자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창의적 디자인과 개발테마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새만금을 '세계적 수변 레저도시' '글로벌 국제도시' '녹색성장 시범도시' '인간중심 도시'로 육성할 방침이다.

새만금 전체의 23.8퍼센트인 총 6천7백30헥타르 면적에 들어설 명품 복합도시는 국토해양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전북도가 공동 주관해 3단계로 개발할 예정이다.

1단계 개발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이뤄지고, 2단계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3단계는 2021년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개발된다.

3개 대안별 디자인 콘셉트 |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에서는 명품복합도시를 방사형(Sha-Ring)과 보름달(Full Moon), 삼각주(Delta) 등 3개 디자인 모델로 개발하는 안을 제시했다.

방사형 도시는 원 중심의 방사형 구조 형태로 중앙부의 원을 중심으로 3개 도시를 배치해 공유하는 방식이다. 3개 도시는 각각 고유의 중심기능을 가지면서 링을 축으로 통합 발전하고, 링 중앙부에는 호수를 조성해 전통백자와 정화수의 이미지를 구현토록 했다.

보름달 도시는 달 궤적처럼 변화하면서 초승달에서 보름달로 단계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형상화했고, 외곽 형태는 보름달, 도시 내부는 전통 창호문양을 재현하며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반도체 웨이퍼를 형상화했다.

삼각주 도시는 기존 해저지형을 고려해 낮은 수심 지역을 중심으로 삼각주 형태로 개발하는 것이다. 수면 위에 떠 있는 섬의 군락을 형성해 바다에서 육지로 향하는 발전축을 따라 도시가 성장하도록 중심지 간 연계를 강화했다.

3개 디자인 대안을 중심으로 정부는 국내외 전문가 심포지엄 등 공청회 등을 거쳐 디자인을 보완한 뒤 올해 12월에 최종 종합실천계획에 반영해 확정할 예정이다.

국제 인지도 제고 위한 홍보전략 | 정부는 새만금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를 높여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종합적인 홍보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글로벌 비전을 압축적으로 담고 있으면서도 외국인이 부르기 쉬운 새만금의 브랜드 네임과 CI를 제작해 유관기관, 재외공관 등과 공동으로 새만금의 통합이미지 홍보에 나서는 한편, 국내외 유력 인사가 참여하는 새만금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파급력이 큰 해외 방송매체에 새만금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토록 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성공적인 투자유치로 '우수 기업 유치→국가경쟁력 강화→새만금 투자매력도 상승'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우수 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적 타기팅 작업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새만금 특별법을 개정해 중국 빈하이 신구나 국내 경쟁지역과 대등한 수준의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고, 국내외 저명인사로 구성된 '새만금 명예자문관'을 위촉하며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새만금 투자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G

정리 · 구자홍(동아일보 출판국 기자)

동아DB



정부는 새만금에 대한 국제 인지도를 높여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종합적인 홍보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자전거 퀵서비스' 변국종 씨

"퀵! 배달… 퀵! 페달 오토바이 게 섰거라"

자전거로 서울 도심을 누비는 남자가 있다. 오토바이가 아닌 자전거로 배달을 하는 '자전거 메신저' 변국종 씨다. 그는 자전거 퀵서비스가 오토바이에 비해 시간과 거리, 무게 면에서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자신한다.



조영철 기자

변국종 씨는 자전거로 서울 시내는 한 시간 안에 배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변국종(42) 씨는 자전거를 타면 마냥 기분이 좋아진다고 한다. 자전거가 좋아 자전거를 타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지난 4월 아예 '바이시클 쿠리어'라는 자전거 메신저 회사를 서울 광화문 인근에 열었다.

현재 그의 회사에는 15명의 메신저가 소속돼 있다. 다들 자전거를 취미로 즐기는 사람들로 주문이 있을 때만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한다. 아직은 고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하지 못해 일거리가 많지 않아 아르바이트 보수를 지급하는 것도 빠듯하다. 하지만 그는 자전거 메신저를 못 미더워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기를 믿고 기다릴 것이라고 한다.

"자전거 메신저가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할지 몰라도 미국, 일본, 호주 등지에서는 보편화돼 있어요. 세계적으로 보면 오히려 오토바이로 퀵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더 드물어요."

변 씨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야말로 자전거 메신저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역설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자전거 메신저=슬로 서비스'라는 편견을 이겨내는 게 쉽지 않다. 그럼에도 그는 이런 편견에 맞서 더욱 열심히 페달을 밟고 '자전거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

> **"자전거는 오토바이에 비해 경쟁력이 뒤지지 않을 뿐더러 '인간적'이고 '건강한'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깨끗한 환경을 만듦으로써 다른 이들의 건강도 좋아집니다."**

"자전거로도 배달 시간이나 거리, 무게 면에서 충분히 경쟁이 됩니다. 시간 면에서 볼 때 광화문에서 동대문까지 30분 걸립니다. 광화문에서 강남구청까지는 40분, 구로구 독산동까지는 50분이면 됩니다. 서울 시내는 한 시간 안에 배달이 끝난다고 보면 됩니다. 장거리 운송도 할 수 있게 지역별로 네트워크도 구축했어요. 예를 들어 세종로에서 경기 용인시까지 간다면 강남의 메신저가 물건을 이어받아 두 시간 안에 배달을 끝내는 거죠. 짐받이와 짐수레를 달면 어지간한 무게는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오토바이에 비해 경쟁력이 뒤지지 않을 뿐더러 무엇보다 '인간적'이고 '건강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고 변 씨는 말한다. 오토바이 퀵서비스가 2, 3개씩 물건을 받아뒀다가 한꺼번에 배달하는 반면, 자전거 메신저들은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출발한다. 무엇보다 자전거를 타면 자신의 건강이 좋아지는 것은 물론, 소음과 매연 없는 깨끗한 환경을 만듦으로써 다른 이들의 건강도 좋아진다.

물론 자전거를 타는 것이 그저 좋기만 하고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다. 서울 도심에서 자전거로 배달을 하다 보면 으레 위험이 따른다. 몇 해 전 사고가 나 앞니 두 개가 부러진 것을 비롯해 그의 몸 여기저기에 상처가 남아 있다. 그래도 그는 오늘도 자전거를 타고 서울 거리를 달린다. G

글 · 백경선 객원기자

문의 · 바이시클 쿠리어 02-6329-9998

마음의 병

글과 그림 · 최영순



나이 들어 생기는 병은 모두 젊었을 때 부른 것이고, 쇠락한 뒤에 생기는 고통은 모두 흥성했을 때 지은 것이다.
– 채근담

2009 세계보도사진전 서울전시회

한 장의 사진… ‘오늘·지구촌’을 말하다









1 ‘2008 올해의 사진상’ 수상작.
3 티벳 오지에서 만난 비구니. 한국 작가 성남훈 씨 수상작.
2 삶의 터전을 잃은 브라질 여인의 저항. 일반 뉴스 싱글 부문 1등 수상작.
4 구조되는 중국 지진 생존자. 스팟 뉴스 싱글 부문 1등 수상작.

흑백의 음영으로, 혹은 컬러의 생동감으로 한 컷의 사진이 함축한 메시지에 숨이 막힌다. 45개국 1백여 개 도시에서 순회 전시 중인 ‘2009 세계보도사진전’ 서울전시회가 서초동 예술의전당에서 열리고 있다.

‘세계보도사진전’은 52년 역사를 지닌 세계 최고 권위의 보도사진전이다. 세계보도사진전이 국내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여섯 번째다.

이번 세계보도사진전에는 지난 한 해 동안 전 세계 1백24개국에서 5천5백8명의 사진기자와 사진작가들이 9만6천여 점의 작품을 출품했으며, 지난 2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10개 분야로 나눠 심사해 그중 27개국 사진가 64명의 사진을 수상작으로 선정 발표했다.

수상작 가운데 ‘2008 올해의 사진상’으로는 미국 사진가 앤서니 수아우의 흑백 사진이 선정됐다. 수아우의 사진은 미국 쿠야호가 카운티의 보안관국에서 나온 무장경관이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시의 한 주택 거실을 가로지르는 장면을 포착했다.

사진 속 주택의 주인들은 담보로 맡긴 집이 압류돼 강제 퇴거당한 상태다. 집안에 무기가 남아 있지는 않은지, 거주자들이 이사 나갔는지 확인해야만 하는 경찰의 팽팽한 긴장감이 사진 속에 그대로 담겨 있다.

한국작가로는 인물사진 싱글 부문에서 다큐멘터리 사진작가인 성남훈 씨가 3등상을 수상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수상작들을 중심으로 2백여 점의 작품이 선보이고 있다.

이 전시회를 주관하는 세계보도사진재단(worldpressphoto.org)은 보도사진에 대한 관심과 정보의 공유를 증진할 목표로 1955년 네덜란드 왕실의 후원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재단이다. 사진대회, 사진전뿐만 아니라 국제 세미나와 워크숍,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사실상 전 세계 포토저널리즘을 주도하고 있다. G

글 · 박경아 기자

일시	7월 24일~8월 26일
장소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V갤러리
관람료	성인 8천원, 중고생 5천원, 초등생 3천원
문의	세계보도사진 서울사무국(02·706·1170) donga.com/wpp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서민금융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겠습니다
- 신용 7~9등급 근로자도 500만원까지 대출
  (신협 6.30~, 농협·우리 7월~, 국민 8월~)
- 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마이크로크레딧) 기관 300곳 확대
- 노점상·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3.4조원 추가(6월)

서민의 보육·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0~4세의 50%는 보육시설·유치원비 전액 지원(7월)
- 차상위계층의 0~1세는 집에서 돌봐도 10만원 지원(7월)
- 소득3분위 가구의 대학생도 학자금 무이자 대출(2학기)

암환자, 어린이의 의료비가 줄어듭니다
- 희귀난치병 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 10%로 인하(7월)
- 암환자 본인부담률 5%로 인하(12월)
- 한의원 물리치료 및 어린이 충치 홈메우기 보험적용(12월)

저소득층의 내집마련을 좀 더 쉽도록 하겠습니다
- 3자녀 이상 가구에 공공분양·국민임대주택의 10% 배정(8월)
- 3자녀 이상 가구 전기요금 20% 할인(8월)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민주택임대료 16% 인하
- 도시서민 밀집지역 200곳 현대식 화장실 설치

영세상인과 여성의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 대형마트 진출시 시도별 사전조정협의회 운영(7월)
- 전국 전통시장 공용 상품권 발행(7월)
- 여행 새로 일하기센터의 주부인턴·취업훈련 확대(7월)



미디어 선진국을 향한 대한민국의 도약 !

- 마침내 언론 통폐합 29년의 낡은 규제가 풀렸습니다.
- 방송과 통신, 신문 간 장벽이 사라졌습니다.
- 미디어 융합을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 대기업과 신문사가 지상파 방송을 지배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채널이 늘어납니다.
- 콘텐츠가 다양해지고,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깁니다.

미디어 융합 시대, 대한민국이 앞장섭니다 !



대한민국정부